

할렐루야! 어둡고 약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주의 평강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주의 손길로 지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5-26절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BBC, 이스라엘을 향한 로켓 수천 발 발사, 무력충돌 격화...양측 사망자 1500명 이상 추정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지난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수천 발을 발사하며 전례 없는 이스라엘 공격에 나섰다. 하마스는 가자지구 인근 지역에 무장 대원들을 진입시켜 주민 수백 명을 살해하고 수십 명을 인질로 잡았다. 이는 규

모나 폭력 수위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번 공격 자체는 사전 경고 없이 발생한 사건이나, 수십 년간 이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마스는 이번 공격엔 여러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중 4가지를 살펴봤다.

가자지구

가자지구는 지중해 연안에 자리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이의 길이 41km, 폭 10km의 지역을 가리킨다. 이곳에는 약 230만 명이 거주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곳 중 하나다.

요르단강 서안 지구, 동예루살렘과 함께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UN에 따르면 가자지구 거주민의 약 80%가 국제 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매일 식량 원조에 의존하는 거주민은 약 100만 명에 달한다. 즉 가자지구에서의 삶은 절대 쉽지 않다는 뜻이다. UN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하루 중 주민들이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3시간에 불과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사람이 마시고, 씻고, 요리하고, 목욕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은 하루에 100리터이나, 가자지구 거주민의 하루 평균 물 소비량은 약 88리터에 그친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영공과 해안선을 통제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경제선에서 누가, 어떤 물품 등이 가자지구로 드나드는지 제한한다.



마찬가지로 이집트 또한 자국 국경과 가자지구와의 경계선을 통과하는 이들을 통제한다.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게 이집트 당국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주말 벌어진 공격의 여파로 이스라엘 정부는 식량, 물,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는 등 가자 지구를 "완전히 포위"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내부적으로 가자지구는 2007년 당시 폭력 사태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충성하는 세력들을 몰아낸 하마스가 줄곧 통치하고 있다.

이후 2014년 하마스와 짧게 갈등을 겪은 이스라엘은 경제선에서 누가, 어떤 물품 등이 가자지구로 드나드는지 제한한다.

사짓는 토지의 면적은 줄어들게 됐다.

알-아크사 모스크

동예루살렘에 있는 '알-아크사 모스크(이슬람교 사원)'는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 사이 긴장을 그 무엇보다도 잘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이 모스크는 이슬람교의 3대 성지로도 손꼽히는 곳이지만, 이 곳이 자리한 성전산은 유대교에서 가장 신성한 지역이기도 하다.

한편 이번 공격 당시 공개된 음성 녹음본을 통해 하마스의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의 사령관 무함마드 알-데이프는 이번 폭력 사태는 이른바 '알-아크사 모스크' 틀 안에서 감히 우리 예언자를

모욕한' 이스라엘인들의 '알-아크사 모스크에 대한 일상적인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몇 년간 이스라엘의 종교적 민족주의자들의 모스크 방문이 늘어나면서 팔레스타인 측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곳에선 팔레스타인 쪽 예배자들과 이스라엘 보안군 사이의 충돌이 종종 일어난다. 지난 4월, 이스라엘 경찰은 이곳에서의 종교적 활동이 논란이 된 이후 섬광 수류탄과 고무탄 등을 동원해 모스크를 습격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선 2021년엔 이스라엘이 이곳을 급습하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면적인 갈등이 11일간 이어진 바 있다. (3면으로 계속)



변증 실천을 위한 네 원칙

기독교 신앙을 변론하고 옹호할 때 항상 필요한 원칙 네 가지

변증에 관해서만은 받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서 기독교 신앙을 변론하고 옹호할 때 내가 꼭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네 가지 현명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딱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내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1. 변증은 '우리' 문제이다. '내' 문제가 아니다.

변증을 잘하려면 서로가 필요하다. 우리 중 누구도 모든 문제를 원스톱으로 다 처리할 수는 없다. 철학자인 나의 주특기는 거대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는 동시에 이면에 숨겨진 가정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내게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전달 방식에 관해서 요청한다면, 그건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3면으로 계속)

예를 들어,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거창한 사상의 실제적인 결과를 연구할 뿐 아니라 때때로 그러한 사상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지와 경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모두가 힘을 합칠 때에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완전한 사례를 개발할 수 있다.

변증을 위해서는 나와 다른 형제 자매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사나운 불독(바리새인과 싸우는 그리스도처럼)도 필요하지만 온순한 풀리(우물가의 여인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처럼)도 있어야 한다. 젊은이와 노인이 다 필요하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흑인과 백인, 아프리카, 동부, 서부의 그리스도인, 모두가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우리는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의 감수성과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변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2면 발행인 칼럼 김성국 목사



3면 시론 최해근 목사



4면 푸른초장 박근제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 퍼 스 | 온 라 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50th 퀸즈장로교회 설립 50주년 KAPCQ 50th Anniversary

뮤지컬 예배 **THE WAY** [NEHEMIAH Rebuilding the Ruins]

네헤미야가 꿈꾸었던 세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일생을 노예로 보내야 했던 히브리인들. 주의 날에 시온을 그리워하며, 예배를 그리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바벨론 강가에서 불렀던 그 노래는 두고 온 고국을 그리워하며, 마음껏 예배드릴 성전을 간구하였던 네헤미야의 꿈이었으며 미국으로 이민온 우리 1세대들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실현시켜 주신 길 되신 예수님. 네헤미야 때부터 2023년 오늘까지 늘 함께 하신 예수님의 그 길 **THE WAY** 뮤지컬 예배로 하나님에게 올려 드릴 그 감동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10. 29. (SUN) 5PM, 2023
Tilles Center (LIU POST, 720 Northern Blvd, Brookville, NY 11548)
예약 문의: (718)886-4040

전진 | Advancement
비전 | Vision
충성 | Loyalty
은혜 | Grace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담임 김성국 목사 | (718) 886-4040 | www.kapcq.org

발행인 칼럼

전쟁과 평화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그의 인생은 전쟁과 평화의 인생이었다.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러시아와 프랑스 동맹국과의 전쟁이었던 크림전쟁에도 참전하였다. 16세 연하였던 아내와 결혼생활 48년은, 싸우다가 정들다가 한(13명의 자녀를 두었다) 전쟁과 평화의 가정이었다. 50세에 그의 내면에 전쟁이 일어났다.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이 일어난 것이 그 후에 신앙의 삶으로 평화를 누렸다. 톨스토이이다. 그가 지은 '전쟁과 평화'는 인류 모두에게 언제나 현실인 주제이다. 전쟁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다. 시간문제이지 인간의 속성은 다름과 전쟁을 지향하다가 언젠간 반드시 폭발하고야 만다. 그 폭발로 수많은 참상을 남기고 결과에 몸서리치다가 평화를 그리워한다. 평화의 시간도 잠깐. 또다시 싸울 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반복되는 역사 이야기이다. 그러기에 전쟁과 평화 이야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나의 이야기이고 여기 우리의 이야기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또다시 터졌다. 아무리 반복되는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이 싸움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은 매우 아프다. 저들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싸우는가. 어떤 가치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까지 인질로 잡아가지도 괜찮다는 것일까. 그토록 치열한 전쟁에는 우상에 가까운, 아니 어떤 때는 우상을 능가하는 이데올로기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는 혁명적 세계관이요 사상의 틀이라 할 수 있다. 이 틀 안에서는 무조건 자신은 선(善)이고 상대방은 악(惡)이다. 우리 민족은 언제나 옳고 다른 민족은 항상 그르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들이 벌이는 전쟁은 자기 나름대로 예배와도 같이 신성하게 여긴다. 이런 왜곡된 신념에서 출발한 전쟁은 대부분 윤리를 수반하지 않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세운 무서운 목표에만 집착한다. 우상 같은 이데올로기는 자정(自淨) 능력을 조금도 갖추고 있지 않다.

전쟁 중의 소망은 무엇인가. 평화이다. 그 평화는 진짜 평화이어야 한다. 가짜 평화 때문에 전쟁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더 사납게 일어선다. 전쟁과 가짜 평화의 악순환을 본다. 그러나 기독교는 순환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악순환이 끝없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순환의 모습을 넘어선 역사의 끝이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관이다. 그 끝은 진정한 소망으로 다가온다. 절대 소망으로 다가 올 미래는 인류가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초월자가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 초월자가 누구신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시다. 그 역사의 끝에 가시적으로 오실 평화의 왕이 여기, 전쟁의 땅에 임재하시기도 한다. 전쟁의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다. 평화의 왕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를 그분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신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름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 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평화의 도구가 되길 간구해 본다.

팀 켈러가 영국 복음주의에 끼친 다섯 가지 영향

설교의 첫 목표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것

영국 복음주의자 그룹이 팀 켈러의 삶과 사역을 기억하기 위해 2023년 7월 4일 런던에 모였다. Redeemer City to City가 주도하여 시작한 런던 프로젝트(The London Project)는 메이페어에서 "팀 켈러 감사의 밤"을 주최했다. 저녁 시간은 런던의 다양한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켈러가 그들의 삶과 사역에 미친 영향력을 간증으로 나눔으로 시작했다. 그날의 핵심 의제는 최근 영국에서 출간된, 켈러에 관한 폴린 헨슨의 책이었다. Christian Heritage London의 이사인 벤 버고가 저자 헨슨을 인터뷰했다.



헨슨의 이 책은 여러 유명한 영국 복음주의자를 포함하여 켈러의 삶과 사역 뒤에서 그를 만든 인물들을 탐구한다. 그러나 특히 놀라운 점은 그가 살아 있을 때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켈러가 끼친 사역의 영향력이 대서양을 건너 너 지구 반대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방식이다.

영국 사랑에 기반을 둔 밀접한 관계

영국 복음주의의 상당 부분이 미국 복음주의의 속으로 스며들던 20세기 중반에 특히 그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람이 팀 켈러였다. 켈러는 따뜻한 경건함을 갖춘 박식한 정통주의와 문화적으로 민감한 접근 방식이 조화를 이루는 모델을 영국 복음주의자들로부터 이어받았다.

J. I. 페커, 마틴 로이드 존스, 그리고 C. S. 루이스는 켈러의 설교와 책에서 자주 언급된다. Helen's Bishopsgate의 딕 루카스(Dick Lucas)와 All Souls Langham Place의 존 스토틀은 역사적 정통성을 가진 기독교에 충실하면서도 열매를 맺는 도심 사역의 모델을 켈러에게 보여주었다. 한편으로 존 뉴턴은 목회 상담의 기본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러나 나는 자신에게 그토록 많은 것을 가르친 바로 그 영국 복음주의 집단에게 켈러가 되돌려 준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래서 런던에 사는 미국인으로서 몇몇 영국 목사들에게 연락해서 켈러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보았고, 영국 복음주의자들에게 끼친 켈러의 영향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1. 회의주의에 빠진 세대를 향한 설교력 있는 설교

케임브리지에서 있었던 켈러의 설교, "위조된 신들"은 마음에 복음을 심는 좋은 사례이다. 켈러 사역의 독특한 특징의 하나는 문화가 만든 우상들을 언급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이었다. 트레버 아처(Trevor Archer)의 지적이다. "팀은 성경이 강조하는 우상 숭배라는 죄를 다시 끄집어내어 설명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따뜻하고 통찰력 있는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현대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두 세대에 걸친 영국 설교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영감을 주었습니다."

맷 풀러(Matt Fuller)는 켈러의 설교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를 일찌감치 인식하고, 그의 설교를 회의적인 지금 세대를 향한 설교 방식의 모델로 삼았다. "런던과 같은 세계 도시의 중심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선하고 신실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데 있어 켈러는 선두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회의적인 시대의 바다에 빠져 있는 지금 상황을 고려할 때, 진리를 선포하는 데에는 설득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했습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장소를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능력이 문화가 만든 우상들까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방식으로 신앙을

선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켈러는 이러한 복잡성을 탐색하는 데에 귀중한 가이드가 된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그의 모범을 따르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가 있다. 나는 켈러의 통찰력, 특히 그의 책 설교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도시 운동을 위한 신학 비전

말씀 사역이 복음 사역의 핵심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켈러는 영국 복음주의자들에게 자신감과 협력으로 이어지는 사역에 대한 통합된 신학 비전을 제시했다. 앤디 메이슨(Andy Mason)의 말이다. "팀은 탈 기독교 시대의 세속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전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실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복음이 런던 사람들의 마음과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더불어서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변혁을 일으키는 능력인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희망을 주었습니다."

도시 운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는 켈러의 주장이야말로 그의 신학 비전이 가진 특징이다. 닐 파웰(Neil Powell)의 말이다. "이 심오한 믿음에 영감을 받은 나를 포함한 많은 목사가 복음주의의 교파를 넘어 동역하는 사역의 능력을 인식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담보 상태를 깨부수는 과격함 움직임이었고, 실로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불어 넣는 일이었습니다." (6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성 ■ LA지사장: 이상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가톨릭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전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칼리한인장로교회 청년부 및 행정담당 풀타임 사역자 청빙
지원 자격: 1. 청년부 사역 경험과 열정이 있는 분, 2. 정규 대학과 미국장로교(PCUSA)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으로서 전도사 또는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3. 현재 미국 내 합법적인 거주자, 4. 나이 30대
제출 서류: 1. 이력서(사진 첨부) 및 신앙 간증문, 2. 최근 설교(CD, DVD, Web Address), 3. M. Div. 졸업 및 안수 증명서, 4. 추천서 2통
접수 마감일: 2023년 10월 31일
보내실 곳: Raleigh Korean Presbyterian Church Attn: Rev. Sanghyun Lee 5408 Duraleigh Road, Raleigh NC 27612
이상현 목사 (919) 455-6500 pastorlee7@yahoo.com www.rkpc.org

제25회 홀사모돕기
주최: 버클리 시온장로교회
주소: 545 Ashbury Ave, El Cerrito, CA 94530
전화 신대원 담임목사: 510-912-1955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께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버클리 시온장로교회에서 올해에도 홀사모 돕기를 합니다. 취지는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홀로되신 *, 세 이하의 사모님들을 돕고자 올해도 아주 의미 깊은 이 사역에 여러분의 참여로 물심양면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여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홀로 남은 교역자의 사모를 홀사모라고 이릅니다. 남편이 된 남편 목사님의 뒤를 잇지도 못하고 험난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도 못하여 전전긍긍하고 있는 홀로 된 사모들은 생활비가 떨어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겨우 잠은 직장에서 내뿜어야 하는 등 세상 밖으로 내쳐진 사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전무후무한 미국 한인교회의 홀사모 지원 대책과 조국 한국교회에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교회의 사역에 훌륭히 동참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홀사모는 우리의 관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적절히 쓰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 속에 일차적인 문제로 허락되며 힘들게 살아가고 아니 겨우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말씀의 가르침이 황해야 할 곳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사람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에 같이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명기 14:29)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생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1면에서 계속)

레바논에 있는 하마스의 고위 관리인 오사마 함단은 BBC '글로벌 뉴스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변화도 "매우 분명한 레드라인(허용 한계선)"이 될 것이라며, 해당 모스크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의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당국은 자신들이 해당 모스크에서 예배의 자유를 지키고 있다고 말한다.

유대인 정착촌

1967년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점령한 이후 이 지역에선 유대인 정착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UN은 지난해 기준 약 7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물론 이스라엘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나, UN과 대부분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 이스라엘의 점령 및 이러한 유대인 정착촌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한편 올해 들어 이스라엘이 점령한 이곳 서안 지구에선 극단주의 성향의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상대로 자행한 폭력 사태가 매우 증가하고 있는데, UN에 따르면 한달에 보고된 사건만 100건 이상이라고 한다.

UN은 지난해 초부터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난 이들이 400여 명이라고 경고했다. 하마스의 오사마 함단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인들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쫓아낼" 이스라엘의 계획에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관계

이스라엘이 온전히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주변 아랍국은 이집트와 요르단 단 2곳뿐으로, 이들 국가와는 각각 1979년과 1994년 평화 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은 아랍 에미리트(UAE) 등 이 지역 주요 국가와도 비슷한 관계로 발전할 길을 열어가고 있다. 지난달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미국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향해 "매일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록 사우디아라비아는 과거 팔레스타인의 국가 창설 이후에만 그 어떠한 협상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과의 관계 정상화 시도에 반대한다. 관계가 정상화되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압박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7일 TV 방송에서 하마스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는 "여러분들이 그 단체와 맺은 모든 (관계) 정상화 협정은 이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이스라엘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을 채택하고 있는 아랍 국가들을 지적했다.

변증 실천을 위한 네 원칙

(1면에서 계속)

2. 변증은 '무엇'만이 아니라 '어떻게'에 관한 것이다.

당신이 하는 말은 단지 변증의 한 측면일 뿐이다. 똑같은 주장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평범하게 끝날 수도 있다.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문장이야말로 진리의 날카로움을 제대로 전달하는 최고의 방식이다. 나는 C. S. 루이스, 제키 힐 페리(Jackie Hill Perry), 그리고 프랜시스 스퍼포드(Francis Spufford)에게서 이 점을 배웠다. 그들은 진실이 스스로 노래하도록 하는 아름다운 문장 작성에 시간을 투자했고, 그 결과 그들의 글은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아마도 지난 수백 년 동안 G. K. 체스터턴만큼 이 일을 잘 해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영원한 사람에서 그는 "익숙함이 애정이 아닌 경멸을 불러일으킨다면, 익숙함을 차라리 낯설게 만드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한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뻔히 안다면 사람들은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체스터턴의 생각은 이것이다. 변증이라는 현장을 벗어나서도 인격은 여전히 중요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강력한 주장과 빛나는 산문으로 기독교를 옹호하던 몇 명의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의 극적인 죽음을 목격했다. 안타깝게도 이들 변증가는 하나같이 세 번째로 중요하고 또 타협할 수 없는 특성인 경건을 놓치고 있었다.

기독교의 진리가 아무리 탁월한 표현으로 강력하게 묘사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면, 그건 카드로 만들어진 집처럼 단숨에 무너질 것이다. 누구나 죄를 짓는다. 그러나 다 똑같지 않다. 우리는 회개하고 투쟁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과 통탄할

신선하게 설교하라. 이전에 다 들어서 아는 이야기라고 떠나는 교인들이 결코 생기지 않도록 설교하라.

3. 변증은 또한 변증하는 사람의 '인격'에 관한 문제이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데에는 말보다 더 중요한 측면이 있다. 바로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사람됨(character)이다. 나는 언젠가 완고하고 지적으로 뛰어난 무신론자 친구를 데리고 가서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와 케임브리지 철학과의 무신론자 사이의 토론을 듣도록 한 적이 있다. 철학과 교수는 냉철했고, 목표가 명확했으며 무엇보다 완벽하게 일련의 주장을 전개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잔인한 방식으로 크레이그의 자격을 비웃었다.

토론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완고하고 회의적인 친구에게 토론 감상을 물었다. 놀랍게도 그는 비겁한 공격을 받은 크레이그가 반격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인상 깊은 점으로 꼽았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크레이그가 더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그날 드러난 크레이그의 사람됨은 그의 말보다 더 큰 울림을 냈다(벤전 3:15).

변증이라는 현장을 벗어나서도 인격은 여전히 중요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강력한 주장과 빛나는 산문으로 기독교를 옹호하던 몇 명의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의 극적인 죽음을 목격했다. 안타깝게도 이들 변증가는 하나같이 세 번째로 중요하고 또 타협할 수 없는 특성인 경건을 놓치고 있었다.

기독교의 진리가 아무리 탁월한 표현으로 강력하게 묘사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면, 그건 카드로 만들어진 집처럼 단숨에 무너질 것이다. 누구나 죄를 짓는다. 그러나 다 똑같지 않다. 우리는 회개하고 투쟁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과 통탄할

만한 잘못을 탐닉하고 심지어 숨기면서 사는 삶의 차이를 안다. 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4. 오늘날 변증은 동시에 내부자와 외부자가 되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나는 피어스 테일러 힌스(Pierce Taylor Hibbs)가 곧 출간될 책에서 "내부자(insider)-외부자(outsider)"라고 표현한 그 입장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이에 대한 훌륭한 모델 중 하나가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 문화를 관찰한 내부자였다. 그는 로마에서 극진한 존경을 받는 키케로가 왜 그토록 훌륭한 작가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단지 로마를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비겁하게 작성한 목록을 읽어 내려간 게 아니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가 로마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독자가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로마에 대해서 썼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철저한 외부자였다. 생각과 감정이 성경적 시각에 맞춰진 사람의 눈으로 로마 문화를 바라보았기에, 로마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기이함과 특이함도 볼 수 있었다.

누군가는 내부자(맥락화하라! 관련성을 가지라!)라는 게 더 자연스럽고, 또 누군가는 외부자 (선포하라! 충성하라!)가 더 자연스럽다. 변증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 당신에게는 내부자-외부자의 어떤 측면을 더 노력해야 하는가?

이것이 내가 변증과 관련해서 내가 배우려고 노력하는 네 가지 원칙이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변증의 사명을 실천하는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 원칙을 구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by Chris Watkin, TGC

시론

2023년 노벨생리(의학)상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매년 이맘 때면 노벨상 수상자 선정과 그들의 업적을 돌아보며 인류를 향한 희망을 느끼게 됩니다. 현재 노벨상은 6개의 영역으로 물리, 화학, 생리(의학), 문학, 평화 그리고 경제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원래 노벨상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던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인류의 문명발달에 학문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도록 제정되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해 '죽음의 상인'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을 보며 많은 회의감을 느낀 노벨이 자기 재산의 94%(440만 불)를 기부하도록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노벨 자신은 19살 때 만났다 삶을 마친 한 여인을 그리며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유산을 이어받을 자녀들이 없었습니다. 노벨의 이런 유언으로 인해 자기 몫을 뺏겼다고 생각한 친척들이 많은 불만을 표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유언 집행자였던 랑나르 솔만(1870-1948)이 포기하지 않고 오늘날의 노벨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수상자들의 선정 방식도 다양합니다. 노벨의 고국인 스웨덴 왕립 과학 아카데미에서 물리, 화학, 경제학 수상자를 선정하고 스웨덴 아카데미에서는 문학상 수상자를,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의학연구소에서는 생리(의학)학 수상자를 그리고 스웨덴이 아닌 노르웨이의 노벨 위원회에서 평화상 수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2 국가에 소재한 연구기관에서 수상자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금년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카리코 교수와 와이스먼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중 mRNA(메신저 리보핵산) 중심의 백신이 가능하도록 기초를 제공한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인 카리코 교수는 헝가리 출신의 생화학자로 눈에 보이는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아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교로부터 연구비가 끊기고 추방되는 그런 삶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의 강한 후원과 딸의 능력을 믿고 매년 노벨상 수상자 명단에서 딸의 이름을 찾던 이제는 고인이 된 어머니의 신뢰와 응원이 자신의 연구를 지탱할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연구 덕분에 인류는 코로나 백신을 역사상 가장 빠른 시일내에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기까지 5-10년이 소요되지만 mRNA 방식을 통한 백신 개발은 불과 10개월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 대부분이 자신의 연구를 폄하하거나 함께 연구하는 것조차 꺼리며 회의적으로 보던 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외길을 걸어오며 마침내 수백만명의 생명을 구한 그녀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치하의 뜻을 표합니다.

문명세계의 발전과 개발을 위해 노벨상이 수여되는 것처럼 영혼의 구원과 쉼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면류관이 주어지는 그 날을 바라보며 ...

살롬.

hankschoi@gmail.com

2001~2023
뉴욕권사전교합창단
뉴욕권사전교합창단 제20회 정기연주회
New York Exporters' Missionary Chorus Concert, 2023
불우이웃돕기/전교기금모금음악회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작곡 | Haydn, Franz Joseph 편곡(여성4부) | 이가영

지휘 양재원
피아노 이정현
오르간 한형락
합연 ROUGE Christian Chamber
코치 김은희 이수연 송은별 박영경
영상 이지연
소프라노(Gabriel, Eve) 민현별
테너(Uriel) 최호중
베이스(Raphael, Adam) 서대원

일시: 2023년 10월 22일 (주일) 오후 6시
장소: 프라미스교회(담임목사 허연행)
130-30 31st Ave., Flushing, NY 11354

공연문의 917-648-1876, 917-658-3181
이 음악회의 수익금은 불우이웃 돕기와 선교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화환은 정중히 사양하며 대신 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초대**

후원 한국일보 뉴욕교회 뉴욕효신장로교회 프라미스교회 뉴욕신광교회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위대한 승리

인생은 마치 운동 경기와도 같다. 전반전에 아무리 골을 많이 넣어도 후반전에서 패배하면 그 인생 게임은 승리한 게임이 되기 어렵다. 게임의 승패는 후반전이 끝나야 알 수 있다. 초반에 아무리 잘 나가도 후반전에 역습을 당하면

그 경기는 역전패를 당하는 패배의 게임으로 끝나는 것이다. 또한 전반전에 일방적으로 골을 먹어 실망한 응원단이 모두 스탠드를 떠났다고 해도, 후반전에 역전승을 하면 그 경기는 결국 승리하는 게임이 된다.

경상도 어느 고장의 부농의 아들로 태어난 K 씨는 인생 전반전은 대한민국 남자들의 최상급인 금수저의 삶을 살았다. 요즘도 일류로 알아주는 SKY대학을 졸업했다. 여기다가 한국 남자들의 선망이었던 제1기 ROTC학사 장교 출신이었다. 신장은 날씬한 180센티의 일류 멋쟁이 스타를 방불케 한 헨섬한 사나이였다. 게다가 E대학 미모의 아가씨를 아내로 인생 전반전을 시작했으니 최상의 행복을 누리고 살았다. 직장마저도 유명회사의 미주지사장으로 파송을 받았으니 그의 인생은 날개를 달고 천상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미 60년대에 귀족 스포츠였던 골프가 싱글이었다고 했다.

이런 금수저 인생들의 결정적인 약점은 신앙이 없다는 것이다. 아내의 신앙마저도 육박 지르면서 선데이 크리스천을 강요했다. 아내가 새벽기도라도 갔다 오는 날에는 여지없이 성경책이 공중비행 하곤 했다고 한다. 팔팔하던 세월을

보내고 나이 60줄에 들어서면서 아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겨우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아내의 옆자리를 지켰을 뿐이었다. 잘 나갈 때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졌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회복된 후에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내던 어느 날 직장에 나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불의의 사고로 한마디 인사없이 남편을 홀로 두고 아내는 떠나고 말았다.

외로운 기러기는 절망적인 삶을 안고 살아야 했다. 지난 날들의 영화와 부귀가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곱씹으면서 하루하루를 회한과 후회의 삶으로 버텨야 했다. 오로지 유일한 소망은 아내가 떠난 예배당 결자리에 홀로 앉아 지난날 아내에게 잘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죄하는 맘으로 지내는 것이 유일한 삶의 존재 이유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주일 한마디의 광고가 그의 인생을 바꿨다.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여호와를 찬송하고 전하게 하

소서' 세계는 실버 선교사를 부른다! 뉴욕 실버 선교회를 설립하고 두 번째 강의 신청을 받는다는 광고가 그의 인생의 반전을 일으킬 줄은 아무도 몰랐다. 실버 선교 훈련을 마치고 한 주간 멕시코에 단기선교를 나갔다. 너무나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현지 주민들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는 동정의 눈물로 기도하다가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강력한 소명에 사로잡혔다. '내가 이 백성들을 책임져라!' 는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홀몸으로 멕시코 선교지에 안착을 했다. 한국말하는 사람 단 한사람도 없이 그는 현지에서 굳건하게 버티기 시작했다. 그는 멕시코 시골 마을에 '실버 미션 농장'을 개발했다. 온갖 채소를 가꾸고 이익금을 통해서 개척교회의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도우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 때가 그의 나이 67세였다.

그는 먼저 교회가 없는 마을을 찾아 어린아이들과 부녀자

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본인은 현지 말로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설교는 할 수 없어 현지 신학생들을 담임목회자로 청빙하기 시작했다. 틈틈이 농사하면서 전도하고 목회자를 청빙해서 후원하면서 일군 교회가 지난 17년 동안에 17개가 세워졌다.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예배당을 건축한 교회도 몇 교회가 되었다. 참으로 그는 84세가 되기까지 인생 후반전을 멋있게 마치고 지난 주를 우리들 곁을 떠나갔다. 인생 게임 후반전에서 위대한 승리의 팡파르를 울리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안기였다. 지금도 세계는 실버선교사를 기다리고 있다.

아침 해도 찬란하지만 저녁 노을은 천지를 붉게 화려하게 물들인다. 지금도 14개 나라에서 몸바처 후반전을 뛰는 뉴욕의 실버 선교사들이여 인생 마지막 후반전에서 위대한 승리가 있을지어다!!!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박근재 목사

(시나브로교회 담임)



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은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알려 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 '두려워 말고'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두렵다'라는 말은 '경외한다'라

겁니다.

그리고 (2) '가만히 서서'라는 말의 의미는 원어에 보니까, '야짜브'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여러 군데에서 '몸을 세우다.' '서다.' '일어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삼하 18:13 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이 '야짜브'라는 단어가 '누구와 대적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NRSV 성경에는, 'stand ALOOF(쌀쌀하게, 냉정하게)'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NIV 성경에는 'stand FIRM(탄탄하게, 견고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14절). 따라서,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오직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애굽의 군사들을 막아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십니다.

갑자기 높은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납게 치솟는 불길과 연기로 인해 밖으로 나올 수도 없어요. 창밖으로 빠져나오려니 너무 높아 뛰어내릴 수도 없는,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도저히 빠져나갈 곳은 한 군데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를 바라봐야 하지요. 위로 뛰어오릅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길밖에는 별다른 길이 없습니다. 모두 옥상을 향해 냅다 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이미 구조 헬기가 하늘 위에서 굉음을 울리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생명의 밧줄이 헬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나 위기 앞에서 비굴하거나 비겁함 없이, 당당하게 담대히 배짱을 갖고 차분하게 가만히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에 헬기를 준비시키겠다고 하시고, 밧줄을 내려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면초가 사방으로 둘러싸인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을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습니까?

가만히 서서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내려 주실 밧줄을 기다리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앞뒤와 옆, 모든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탈출할 곳이라고는 전혀 없을 때, 편안하게, 분명하게, 흔들림 없이, 냉철하게 위기와 대적하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실 밧줄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튼튼하고 안전한 밧줄을 여러분에게 내려 주실 것입니다.

mission4jsc@gmail.com

밧줄

출애굽기 14:10-14



옛날 중국의 '한'이라는 나라와 '초'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나라의 왕은 '유방'이라는 사람이었고 초나라의 왕은 '항우'라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초나라의 전력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초나라의 '항우'는, 한나라의 '유방'을 우습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상대를 너무 알보았던 초나라 항우의 군사들은 한나라의 작전에 말려들어 '해하'라는 지역에서 완전히 포위당하게 됩니다. 그 바람에 초나라 군사들은 저마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결국은 패하고 말아요. 그러나 초나라의 '항우'는 포위망을 뚫고 살아남은 패잔병들을 모아서 진영을 재정비해서 또다시 한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초나라 진영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밤이면 밤마다 애절한 노래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초나라 군인들이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초나라의 고향 노래가. 매일 밤 사방에서 들려오는 그 애절한 노래는 가뜩이나 전쟁에서 패해서 사기가 꺾여 있는 초나라 군사들이 고향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밤마다 들려오는 고향 노래는 급기야 초나라 항우의 군사들로 하여금 창과 칼을 버리고 고향으로 도망치게 만들고 맙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전략은, '장량'이라는 한나라 장수가 생각해 낸 아주 기발한 생각이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마침내, 초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나라의 '항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아요. 이 내용은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사기'라는 책에 기록된 이야기이고 여기에서 유래된 고사성어가 바로 '사면초가(四面楚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면초가'라는 말은, 이야기 내용처럼,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으로 적에게 둘러싸인 상태나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흔히 사용하는 말이죠.

애굽에 노예로 팔려 갔던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 요셉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형제와 자손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민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민 간 지 430년이 지나서 장정들이 약 60만 명이 되는 커다란 민족으로 성장하

고 딱 하나 가로막고 있는 것이었어요. 급박한 상황,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그렇다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위기를 마주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환경이나 조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에는 홍해 같은 환난이나 난감한 상황, 뒤에는 애굽 군대 같은 위험이나 위기가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면초가의 고립된 위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의 13절은, 우리에게 건널 수 없는 '홍해'라는 바다

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로 이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 말고'라는 말은 "사면초가의 어려운 위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만큼 '하나님' 뵈기를 두려워할 만큼' 심각하게 여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면초가의 위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그래서 두려워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즉, 그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는

게)로 번역되어 있어요. 따라서, '야짜브'라는 뜻과 의미를 종합해서 이 말을 해석하자면, "사면초가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너희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흔들리지 말고, 냉정하게 쌀쌀하게, 탄탄하게 견고하게 대적하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 '두려워 말고'가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할 만큼 우리들이 겪는 문제나 위기들을 심각하게 무시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것들 앞에서 비굴하거나 비겁함 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배짱을 갖고 대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호와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기쁜 소식! 위스콘신 주법원에서 학부모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학교로부터
"학부모의 자녀 성적체성 보호권리"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려준다!!

위스콘신주 법원은 지난 화요일에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 학생이 학교에서 다른 성 정체성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확인(affirm)까지 시키게 하는 학교의 정책은 자녀에게 적절한 의료적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자녀의 총체적 건강 관리를 결정할 부모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학부모의 자녀 성적체성 보호가 승리를 한 매우 중요한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위스콘신주의 법률 및 자유 연구소 부변호사 루크 버그(Wisconsin Institute for Law and Liberty Deputy Counsel Luke Berg)는 "이번 승리는 부모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승리입니다."라고 말하며 이어, "이 결정은 공립학교들마다 현 바이든 행정부의 미연방차원에서, 주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성전환(Transgender movement) 운동에서 학부모들을 배제하는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는 전국의 많은 학교에게 큰 경고가 될뿐 아니라, 좋은 승리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강 관리 문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학부모의 법률 변호사가 의료 전문가의 여러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교육구는 이 주장을 "무시하는 것 같다"며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 의사 모두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의 성 역할이 다른 '이중 생활'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데 동의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부모의 명시적 동의 없이 교직원이 학생의 생물학적 성별과 상충되는 이름이나 대명사를 사용하여 학생을 지칭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판사가 이 사건을 의학적 문제로 규정하는 데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구는 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에게 약을 투여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에게 스포츠 참가를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구는 부모의 기본적 자유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의 대명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전역의 적어도 1,000개 이상의 학교(School Districts)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의 사회적 성적체성 전환을 인정하도록 몰아갈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시애틀 오레건, 와싱턴, 뉴욕등 같은 Deep Blue States와 도시 같은 경우는 학교 관계자가 자녀의 성전환 사실을 부모에게 완전히 숨기도록 적극적으로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스콘신주의 승리는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깨어난 학부모들에게는 큰 소망의 소식이 됩니다.

따라서 판사는 "자녀에게 적절한 의료 및 건강 관리를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며, 엄격한 조사 기준에 따라 교육구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교육구의 입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학부모의 편에 선 판결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지시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는 모든 부모가 소중히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 중 하나입니다."라고 자유수호연맹의 선임 변호사이자 ADF의 부모 권리 센터(Alliance Defending Freedom and director of ADF's Center for Parental Rights.) 소장인 케이트 앤더슨(Kate Anderson)은 "법원은 부모와 자녀를 약화시키는 케틀 모레인 교육구의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이러한 부모의 심각한 우려를 존중하는 것이 옳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들어, 캘리포니아경우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깨어나고 있는 수많은 마마베어 파파베어들이 학부모의 알 권리를 다시 되찾기위해 저희 단체 Tvnext 와 함께 힘써 싸우고 있기때문에 소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 권리를 반대하고 학교편에서 주장한 변호사측은 다음 사항을 주장했습니다. 교육적 맥락에서 교육구는 트랜스젠더 정책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타이틀 IX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에 근거한 것"이다.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 교육부가 2016년에 배포한 트랜스젠더 학생에 관한 친애하는 동료에게 보내는 편지"를 언급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에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이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이 법에 대한 해석을 채택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사는 그러한 지침이 법의 효력을 갖지 않았고 연방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철회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위스콘신주의 판결을 통해, 미국인에 있는 교육구들과 학교,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성적체성에 관련된 권리는 하나님께서 학부모들에게 주신 귀한 권리임을 인정하고 우리 다음세대를 힘써 지켜나 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하며, 계속하여 미전역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영적, 육적 안전과 학부모들의 올바른 권리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의 보호, 양육 및 통제"에 관한 결정에 대해 근본적인 자유의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위키사 카운티 순회 법원 판사 마이클 맥스웰(Waukesha County Circuit Court Judge)은 말합니다. "단순히 부모의 결정이 자녀가 동의하지 않거나 위협이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결정을 내릴 권한이 부모로부터 주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이전될 수 없습니다."

판사는 "학교 내에서 미성년자와 관련된 트랜스젠더"가 현대 사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며 "이 문제에 대한 법은 전국적으로 여전히 발전하고 있으며 대부분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인정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판사는 해당 학교가 "학교에서

맥스웰은 "이것은 명백히 의료 및 건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 저는 제자훈련도 받고 매일 QT도 하며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가정에서 남편에게 참지 못하고 화를 자주 냅니다. 아직도 내 자신의 자아가 살아 설치는데 어떻게 해야 내 성질을 죽일 수 있을까요?
- 토랜스에서 김집사

화를 자주내는 데요

A: 이것은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화를 자주 내면 부부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남편도 덩달아 같이 화를 내게 됩니다. 13-14세기의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The Imitation of Christ)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침회록과 존 번연의 천로역정과 더불어 기독교 입문서 가운데 최고의 기독교 고전입니다. 토마스 아켄퍼스는 1406년 청빈 순결, 순종이라는 수도사 서약을 했고 사제가 된 후에 수도원 부원장으로 일하면서 갖 들어온 수도사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그리스도인이 고백해야 할 2가지 고백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무능의 고백 - 즉 나라는 존재는 믿지 못할 존재요 내 자신의 힘만으로는 죄악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영적으로 자랄 수 없다는 인간 무능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연약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만능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무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따른다면 나는 그 분으로 인해 All things are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고백인 것입니다.(벧 4:13)

토마스 아켄퍼스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분이 걸간 길을 깊이 되새겨 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가 가진 삶을 우리도 제자로서 따라가야 하는데 그럴려면 세상 것을 버리고 자기 부정(SELF-denial)의 삶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마16: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제자의 삶, 즉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의 유명 교수 자리를 박차고 몽골 선교사로 간 이용규 선교사는 내려놓음 이란 책에서 2가지를 부정하고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첫째, 자기 의(Self-Righteousness)-과거 우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 우리는 너희보다 의롭다는 자기 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지옥의 땀감이라고 무시하고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의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 애(Self-Love) -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데 필요하나 자기 애가 도가 지나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애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연민의 감정이 강하면 남에게 상처도 잘 받고 남에게 상처 주기도 잘하고 자기를 방어(Protect)하기 위해 쉽게 화도 잘 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부정의 삶이 필요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라성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찬양: 매주(목)오후 4:00-7:00 Tel: (703) 821-1112, estrosos@yahoo.com 6354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38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urne Rd, Levittown, PA 19047	벤틀교회 담임목사: 백성중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다문화: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ton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 435-4579, www.bostonlrea.org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새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후 7:00(목) 새벽 예배: 오전 6:00(화/목/토) 구약 예배: 각 구역별로 한국 학교: 오전 10:20(주일) Tel: (850) 423-9700, Fax: (850) 423-996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	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Tel: (703) 891-9235, www.koreanp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	일각사 제자들과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 820-9049, www.jesu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함성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새벽예배: 오후 8:00 토요영양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 635-1842(H),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 8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정호 주일영양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 353-6675, www.tacomacr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Our doors are open

(죄 많은 분 환영합니다) 라는 제목과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무결한 사람은 없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죄 많은 분을 환영합니다." 출처 : 톱클래스(http://topclass.chosun.com) 인터뷰 글을 보고 당연히 새로 개척하거나 부흥이 한창 진행 중인 화제의

교회에 관한 기사인 줄 알고 가볍게 클릭했다. 그러나 기사는 서울 숙대입구 근처 청파동에 있는 동네서점에 관한 이야기였고 전혀 생각지 못한 글에 '아,,,'하는 탄식과 함께 나에게 충분한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죄 많은 분 환영합니다." '책방죄책감' 입구에 붙어 있는 문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미 있어하시지만, 만족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마냥 재미로만 붙여 놓은 문구는 아닙니다. 평소 불평등과 양극화, 차별, 젠더 갈등 등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략- 출처: 글 흥진일 책방죄책감 대표(죄사장) 한겨레 문화, 책생각 2022.9.23

40대 중반의 서점대표는 기성세대인 본인에게 죄책감은 책임감과 같은 것이며 선한양심과도 같은 죄책감을 함께 내려놓고 소통하고, 줄여가는 여러 세대가 함께하는 커뮤니티의 장으로서 자신의 서점이 사용되길 바란다고 얘기했다. 내게 서점이 위치한 지명 청파동이 익숙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청파감리교회' 때문일 것이다. 청파교회는 시인이자 문학평론가며 탁월한 글 솜씨와 영감 있는 설교. 그리고 말씀의 행위로 살아가는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는 김기석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다. 나처럼 직접 청파교회에서 예배

를 통해 그 분의 설교를 듣지 못했어도 온라인과 또 저자로 쓰신 많은 책들로 김기석 목사님께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깨달음,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위로를 얻은 사람들이 많은 줄 안다. 궁금해서 네이버 지도로 찾아보니 청파교회와 죄책감서점 두 곳은 서로 도보로 5분, 차로 4분 거리 지척에 있다고 나온다. 현대를 살아가는 죄 많은 이들은 과연 청파동 거리에서 어느 곳의 문을 열고 들어갈까? 혹은 죄 많은 이가 열기에 교회 문은 너무 무거워 다른 문을 열게 되지는 않을까? 죄책감서점은 사모이자 크리스찬인 나에게 많은 생각과 숙제로 남겨진다. 남편이

속한 UMC 교단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모토 "Open hearts, Open minds, Open doors" 라는 말이 있다. 내 힘으로 힘껏 밀어 들어가는 회전문이 아니다. 문 앞에서 맞는 주문을 외친 자에게만 열리는 가려서 열고 닫히는 문이 아니다. 교회문은 문안과 밖 모든 죄인들의 마음과 심령을 향해 그냥 활짝 열려있는 문이 되어야 한다. 지금! 죄 많은 자들을 환영할 곳은 서점이 아니라 우리 빛을 값없이 전부 망감하여 주신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교회여야 한다. songjeu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이스라엘에 갇힌美교회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 발이 묶인 여러 미국 교회의 성도와 목사가 현지 평화를 위해 두 손을 모으고 미국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의 퍼스트침례교회의 브렌트 맥두걸 담임목사와 교인 등 12명은 이스라엘 선교 중 무력 충돌을 경험했다. 이들은 현재 예루살렘 구시가지 성벽 안에 안전하게 대피했다. 맥두걸 목사는 8일 페이스북에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긴장과 전쟁이 이토록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며 "멀지 않은 곳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교회가 속한 지역 침례교회협의회는 "미국 성도와 현지인, 또 이스라엘 전 지역에 평화가 널리 퍼지기를 기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주 킹스포드의 씨나사이드침례교회 성도 50여 명도 빌 심스 담임목사와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 중이다. 이 교회의 한 성도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소식을 듣고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라고 느꼈다"며 성도 모두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밝혔다. 이 교회는 지난 주일 예배에서 성도의 무사 귀환과 이스라엘을 위한 특별 기도시간을 가졌다.

엘라베마주의 교회 2곳도 현지 여행 중 오도 기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다프네의 세인트폴성 공회교회의 텍 다이스 사제는 최근 현지에서 성도와 함께 온라인 기도회를 진행했다. 그는 "주님의 섭리와 보살핌을 신뢰하며, 우리가 그분의 선하신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며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고 이 땅에 곧 평화가 오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성도 11명이 현지 선교 중인 베스타비아 힐스의 세이드마운틴침례교회의 조지 라이트 담임목사는 9일 주일 예배에서 특별기도 시간을 권면했다.

"확진 막아라" 경고·중재 나선 주변국들...빈살만 "팔레스타인 지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과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하마스 공세에 가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9일 중동 내 미군 태세 변화 관련 브리핑에서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배치 등) 태세 강화는 이스라엘 방위에 대한 미국 지지를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주고, 이란과 헤즈볼라, 그리고 현 상황을 악화하려는 지역 내 다른 대리자들에게 억지력 있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추가 지원하면서도 지상군 파병 의향은 없다고 밝혔다.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도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 회의 참석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로 이동하는 미 군용기 내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란에 (개입하지 말라는) 매우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며 "이란이 이 메시지를 분명히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5개국 정상은 이날 이스라엘 지지를 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하마스와 하마스의 지독한 테러 행동에 분명한 규탄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반면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통화하고 "사우디는 팔레스타인의 편에 서 있으며 분쟁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파인셜타임스(FT)가 사우디 국영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양호한 삶을 누릴 적절한 권리, 희망과 포부,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성취할 권리를 지지한다"며 "국제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지 않아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우디는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중이다.

팔레스타인에 우호적인 튀르키예와 이집트는 중재를 위해 나서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압둘 파타 엘시이 이집트 대통령은 이날 통화를 하고 양측에 즉각 폭력을 중단하고 주민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고 이집트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스라엘·가자 양측서 1500명 죽었다... "부상자 6천명↑"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교전 사흘째인 9일 양측 사망자 수가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 산하 정부 공보실은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800명 이상, 부상자는

2600명 이상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지난 7일 새벽 하마스 무장대원이 침투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상황이 정리되면서 사망자 수가 전날보다 100명가량 늘었다. 공보실은 "약 150명의 인질이 가자지구에 붙잡혀 있다"며 "이들의 생사가 불투명해 사망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망자와 인질 중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우크라이나 등 외국인도 포함됐다. 특히 미국인 최소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와 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집중 공습이 이어진 가자지구에서도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이날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687명, 3726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양측의 사망자를 합하면 최소 1487명이다. 부상자 또한 최소 6326명이 넘는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사상자가 늘어나자 가자지구 민간인 주택에 대한 폭격이 계속될 경우 그 보복으로 민간인 포로를 처형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나섰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 지휘부에 대한 암살 작전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서방이 다에서(이슬람국가-IS)를 대할 때 했던 것처럼 하마스를 겨냥해 모든 방면에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이같이 밝혔다.

아프간 강진 사망자 2445명으로 늘어...유엔 "긴급지원"

아프가니스탄 북서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445명으로 늘어났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재난부 대변인은 "사망자 수가 2445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당초 9240명으로 발표됐던 부상자 수는 "2000명 이상"이라고 정정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아프간 북서부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규모 4.3에서 6.3 사이의 여진이 여덟 차례 이어졌다. 건물 잔해에 사람들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아프간 강진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 국제사회에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아프간 국민과 연대를 표명하고 희생자 가족을 향한 진심 어린 애도와 함께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아프간 내 유엔 및 유엔 파트너는

현지 당국과 협력해 필요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긴급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은 아프간에 최대한 원조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아프간 인민이 재해의 영향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고향을 재건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며 "중국은 아프간의 수요에 따라 최대한 구조와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벨평화상에 수감 중인 이란 여성 인권 운동가 모하마디

올해 노벨평화상은 이란의 인권운동가이자 언론인인 나르게스 모하마디에게 돌아갔다. 모하마디는 '한국가 선전 확산' 혐의로 이란 당국으로부터 징역 10년 9개월을 선고 받은 뒤 테헤란의 악명 높은 에빈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6일 "이란 정부의 여성 억압에 맞서 싸우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투쟁한 모하마디에게 2023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상으로 모하마디는 이란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노벨평화상을 받게 됐다. 그의 멘토이자 동료인 시린 에바디도 2003년 이 상을 받았다. 모하마디는 1972년 이란 중부의 도시 잔잔에서 태어나 20대에 인권운동을 시작했다. 대학 졸업 후 개혁주의 언론사에서 기자로 활동했고 2001년 에바디가 이끄는 '인권 수호자 센터'에 합류했다.

모하마디는 지난해 9월 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한 뒤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다. 여성 수감자들에게 성적·신체적 학대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동료 수감자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아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벨위원회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모하마디를 13차례 체포하고 5차례 유치 판결을 내렸으며 총 31년의 징역형과 154대의 태형을 선고했다. 모하마디의 남편이자 인권운동가인 타기 라마니는 뉴욕타임스에 "이 상은 이란에서 수십년간 활동한 아내의 공로를 인정하는 상이지만, 동시에 불공정한 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수십년간 이란의 변화를 위해 싸워 온 모든 인권운동가에게 주는 상이다. 이란의 여성, 생명, 자유를 위한 운동에 대한 인정"이라고 평가했다.

모하마디는 지난 4월 전화 인터뷰에서 "매일 창문 앞에 앉아 푸른 자연을 바라보며 자유로운 이란을 꿈꾼다"며 "나를 더 많이 처벌하고 내게서 더 많은 것을 빼앗을수록 나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쟁취할 때까지 싸울 결심을 더욱 굳건히 한다"고 말했다. 베리트 레이스아네르센 노벨위원장은 "이란 당국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 모하마디를 석방할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팀 켈러가 영국 복음주의에 ...

(2면에서 계속)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속도는 교회보다 훨씬 더 빠르다. 켈러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에 뿌리를 둔 도시와 협력에 대한 태도를 모델로 삼았다.

3. 문화와 연결

켈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그가 영국 복음주의 목사들과 신학자들에게 큰 빛을 쬐을 뿐만 아니라 영국 문화와 땅을 누렸다는 점이다. 켈러가 세워 놓은 좋은 기반 위에서 더 큰 사역을 구축하고자 하는 지도자의 한 명인 제임스 에글린턴(James Eglinton)은 영국 리더십에 끼친 켈러의 영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찰력을 제공한다. "오늘날 영국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켈러의 사역만큼 널리 영향력을 끼친 다른 기독교 지도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팀이 영국인이 아니고 또 영국에서 살거나 공부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가 끼친 영향은 더욱 놀랍습니다."

켈러의 뉴욕 사역은 그가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에 적응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문화적 민감성은 의심할 바 없이 영국인에 대한 그의 매력을 강화시켰다. 에글린턴의 결론이다. "그는 사람들의 숨겨진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고, 그 지식을 사용하여 영국 그리스도인들과 설득력 있게 연결했습니다."

4. 아름다운 은혜를 강조

문화 변증학은 불신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참되기를 원하도록 돕는 데에 중점을 둔다. 켈러는 단지 이론적이거나 명제적인 개념이 아니라,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깊고도 정서적이며 또한 살아있는 실재로서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이러한 접근 방식을 구현했다. 여기에 관한 메이슨의 설명이다. "켈러는 은혜가 개인적이고 목회적인 모든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도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많은 빛을 쬐었습니다."

풀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다준 효과를 더욱 자세히 추적한다. "켈러의 인자한 말투는 사람들을 교정하는 데에 더욱 효과적이었습니다. 종종 스스로를 자유주의 조류로 가로막는 포위된 소수자라고 느끼며 힘들어하는 영국 복음주의자들에게 켈러는 관대함과 은혜를 바탕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 고백의 진리를 굳게 붙잡는 모습을 보여준 훌륭한 모델이었습니다." 켈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개혁신학의 중심 사상이야말로 삶과 사역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영국인들에게 보여 주었다.

회 개척 현장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 중 하나이다. 파월의 말이다. "도시 교회 개척에 대한 켈러의 헌신은 전반적인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뉴욕에서 그가 보여준 사역은 영국 도시 사역의 청사진이 되었으며, 많은 목사들이 야심찬 노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가 끼친 비전의 영향은 뉴욕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훨씬 넘어 영국의 도시 사역 조직에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켈러의 영향력은 Co-Mission, New Frontiers 및 FIEC를 포함한 영국의 주요 교회들의 개척 노력에서 발견할 수 있다.

5. 교회 개척에 투신

마지막 인상

켈러는 영국 전역에 걸친 교

센터처치에서 켈러는 이전보

by Thomas West, TGC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78. 이은구 (1873-1958)

이은구는 1873년 9월 8일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서른두 살이 되던 1905년에 청운의 꿈을 안고 하와이 노동 이민을 추진하여 가족을 한국에 두고 홀로 그해 2월 26일에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하와이로 이주한 그는 Eun Koo Lee로 통했다.

\$6,883으로 제일 많고, 특별 후원이 \$678.50, 임대료 수입이 \$98 그리고 외부 후원이 \$157.33였다. 본 연회에서 이은구는 유등면과 함께 교육부 위원에 선임되어 교육부 부장 이승만을 돕게 되었다. 이날 자선부 임원도 선출되었는데 부장에 박인양, 위원에 남승명과 이정근이 선정되었다.

라하이나 한인 감리교회 1910년에 이은구는 하와이군도 마우이 카운티의 라하이나에서 거주했다. 그해 44세의 조윤택이 홀아비로 한국에서 태어난 15살 된 아들 재은과 함께 라하이나에서 거주했는데 그가 라하이나 한인 감리교회를 개척했다. 개척한 교회는 스톤 한인 캠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교회에 이은구가 출석한 것 같다.

1919년 1월에 이은구는 와일라이에 있는 기독교원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줄 것을 국민보에 게재했다. "와일라이 선량한 바람에 울려나오는 높은 집은 우리 청년 남녀 학생이 기숙하는 기독교원이라. 청아한 찬미가와 요요한 풍금 소리는 오고 가는 유지 열사의 어찌 한번 감상치 않으리오마는 우리 민족 대한 사랑 그 감상이 어떻다고 할까. 다수한 남녀 학생은 연연한 손을 들어 우리를 영접하는 참 과연 우리의 감상을 일층 더 좋으니. 뜰앞에 푸른 초초는 우리의 중임을 대신한 듯하여 자수 자괴함이 한층 더 발함을 저같이 연애하는 우리에 더 어린 학생에 무겁고 중한 목적을 이루고저하는 신의를 만족케 하여 주지 못한 부끄럼이 과연 나의 심중을 현란케함이다. 오늘날 과연 학교에 사실을 들어 말하고자 함은 이때에 이런 정세를 일반 동포와 일반 학부형 되시는 이들에게서도 아셔야 하겠기로 대강말함이라. 지금 학교 정령으로 말하면 이 박사는 세세 부득이하여 타 곳을 가셨고, 다만 스타크 부인과 김영우 씨가 중임을 대신한 바 전후 적절에 곤란함이 한두 가지 아닌은 우리 일반 동포가 말하지 않더라도 아실여니와 학교 소부가 불소하여 이리도 절화 정경을 당하게 됩니니 이것이 우리 책망이 아니며 우리의 실책이 아니라 할 수 없소이다. 만일 몇 달 동안 저 학교 하나를 치루어가지 못하고 폐지케 되는 경우면 멀리 있는 이 박사 마음도 우리가 저버림이 어려하다 할 수 없을뿐더러 또한 우리 상황이 설명치 않으려니와 만일 우리가 이 몇 달 동안 별별 운동과 특별한 성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와일라이 깊은 곳에 표현한 우리의

그해에 만주 하얼빈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순국한 안중근 의사에 기부금을 낸 라하이나 거주 한인 이 다수 있었다. 기부한 자들은 이은구를 포함하여 안석운 등 50 여명이었다. 이들은 팔개는 15달러를 기부했고, 적개는 50센트를 기부했다. 이들 대부분이 라하이나 감리교회에 출석한 자들로 보인다.

1926년 정월 11일부터 18일까지 호놀룰루에 모여 하와이 교민단 총간부를 조직하였다. 이날 총단장에 최창덕, 부단장에 김성기가 당선되었다. 총단장이 받은 표수는 99표에 대한 239표였고, 부단장은 152표에 대한 186표였다. 이날 총단의 간부 임원도 조직되었는데 이은구는 총부가 되었다. 기타 임원으로는 서기에 김광재, 재무에 김광재, 법무에 전경준, 상부에 민은호, 구제원에 김삼의 그리고 학부에 양우찬이었다. 최창덕은 하와이 한인 사회에 다년간 봉사하였으므로 하와이 정형에 매우 친숙하여 그해 하와이 한인회에 서장이 비칠 것을 기대했다.

국민회 제8차 연회가 1917년 1월에 있었다. 연회에 보고된 작년 통계는 아래와 같았다. 78명이 한국에서 이주하였고, 이 중 67명이 여자였고, 11명이 남자였으며, 여자들은 대부분 사진 신부였는데 재작년보다 많았다. 81명이 태어났고, 이중 남자아이가 39명이었고, 나머지 42명은 여자아이가 31명이 사망했고, 이중 남자가 27명이었고, 여자가 4명이었다. 11명이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 7명이 남자와, 4명이 여자였다. 미국 본토로 이주한 자는 남자 8명, 여자 3명으로 총 11명이었다. 국민회는 63개 처에 지부를 두었는데 주로 농장에 있었고, 이 중 6개 처가 작년에 조직되었다. 18개 처의 농장에 한국인을 위한 초등학교가 있었고, 미국 감리교 선교부가 운영하였으며, 국민회 수입 총액은 \$7,816.83였는데 회비가

남녀 학생에 연연히 부르짖는 정형을 면치 못하겠으니 참 이때를 당하신 우리 경애하시는 일반 형제자매는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멀리 호놀룰루와 일라이 우리의 심어성상 적공한 탐이 나무아미타불 지경이 되지 않게 하심을 한번 경고코져 하여 추황한 말 두어 줄로 결백한 국민보 한편 페이지를 더럽히오니 우리의 총애하시는 일반 동포시여 한번 경성하며 깊이깊이 사세를 통창하심을 바라나이다."

1924년 1월 31일에 하와이 교민단 총부단장 선전에 관한 기사가 신한민보에 게재되었다. 그달 5일에 호놀룰루에서 각 지방단 의사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와이 대한인 교민단이 모였는데 마위9동과 마위호야 대표로 이은구가 참석했다. 기타 참석한 자는 와일루야 대표 한영우, 와이하와 대표 정도원, 호항 대표 손창화, 전이주, 노진구, 민한옥, 민근호, 하나 대표 이근원, 힐로 대표 김경준, 학갈라우와 학갈라우 상 대표 안시흥, 와이복가 대표 박원백, 마리후 대표 박원백 등 12명이었다. 총선거의 결과는 총단장에 61표에 대한 394표를 얻어 김영기가 피선되었고, 부단장은 142표에 대한 312표를 얻은 과래홍이 피선되었다.

이들 한인의 대부분은 파이아 한인기독교회 교인이었다.

1932년 1월 7일부터 3일간 하와이 한인기독교회 제15주년 연회가 호놀룰루 스쿨 스트리트에 있는 한인기독교회관에서 있었다. 이은구는 마위섬에 있는 파이아 지역의 한인기독교회 대표로 참석하였다. 기타 참석한 자들은 호항 대표 김형식, 이종관, 조석진, 안현경, 박주범, 정운서, 힐로 대표 장 봉, 코나 대표 김순성, 와이하와 대표 양흥림과 박동완이었다. 먼저 박동완 목사가 30분간 기도회를 인도하였고, 작년 연회 회장이었던 최선수가 개회를 선언한 후 각 지역 대표의 대표증을 조사하여 접수하였다. 호항 교회 신임 목사 김형식을 회중에 소개한 다음에 연회를 조직하였는데 이은구는 안현경과 함께 재정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기타 임원으로는 회장이 김형식, 부회장은 정운서, 서기는 박주범, 순서 위원은 박동완, 규칙 위원은 박동완과 김형식, 후보자 전형위원은 양흥림과 조석진, 통계표 위원은 조석진, 성만찬 위원은 김형식으로 선정하였다.

마위섬에 있는 파이아 지역의 한인기독교회가 여러 해 목사가 없이 교인들끼리 양재구를 부사로 택하여 교회를 유지하였다. 본 교회는 1934년 가을에 이은구를 전도사로 세워 교회를 담임하도록 하였다. 이은구의 지도하에 특별히 청년들이 크게 활동하여 청년회를 조직하였고, 찬양대를 조직하여 예배에 활력을 부였으며, 주일 학교가 잘 발전할 수 있었다. 이로써 매 주일 평균 50명여가량이 출석하여 예배를 드렸고, 그해 말에 적은 교회였지만 재정 상황이 좋아 50여 달러가 잔고에 있었다.

이듬해인 1935년 1월 7일부터 3일간 하와이 한인기독교회 제15주년 연회가 호놀룰루 스쿨 스트리트에 있는 한인기독교회관에서 있었다. 이은구는 마위섬에 있는 파이아 지역의 한인기독교회 대표로 참석하였다. 기타 참석한 자들은 호항 대표 김형식, 이종관, 조석진, 안현경, 박주범, 정운서, 힐로 대표 장 봉, 코나 대표 김순성, 와이하와 대표 양흥림과 박동완이었다. 먼저 박동완 목사가 30분간 기도회를 인도하였고, 작년 연회 회장이었던 최선수가 개회를 선언한 후 각 지역 대표의 대표증을 조사하여 접수하였다. 호항 교회 신임 목사 김형식을 회중에 소개한 다음에 연회를 조직하였는데 이은구는 안현경과 함께 재정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기타 임원으로는 회장이 김형식, 부회장은 정운서, 서기는 박주범, 순서 위원은 박동완, 규칙 위원은 박동완과 김형식, 후보자 전형위원은 양흥림과 조석진, 통계표 위원은 조석진, 성만찬 위원은 김형식으로 선정하였다.

힐로 한인 기독교회 장 봉 목사와 대표가 미처 출석하지 못하여서 6일까지 정회하였다가 7일 하오 7시에 속개하여 사무를 처리하였다. 먼저 중앙 이사국장 대리 박동완 목사가 1년 동안 사업 성적을 보고하였다. '대체로 보면 우리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유지 발전시키려는 굳은 정신과 결실이요, 청년들이 차차 교회에 접근하여서 활동하는 현상이 밝히 보이는 것이요, 또한 일반 사상이 전환되는 경향이 곧 이전에는 먼저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교회도 서겠다



파이아 한인 기독교회 (1930년대)

고 생각하던 것을 이제는 교회가 틈틈히 뿌리를 박고 서게 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다. 따라서 정치 운동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참으로 바로 개인 생각이었다. 이 모든 현상으로 보면 우리 교회 장래는 곤란도 있으려니와 오직 낙관할 수밖에 없는 줄 알았다.' 작년에 행한 사업 가운데 기독교회의 다년 현안인 교회 헌장과 성례문을 제정하였고, 교회보를 2호까지 발행하였으며, 캠프록과 옥갈나 등 두 곳에 새로 교회를 개척하였으며, 내지 선교사업으로 이춘원 목사에게 1,282달러를 후원하여 임천 흥산동에 19채에 있는 708명의 교인을 섬기게 하였다.

이날 각 교회 담임자의 보고가 있었는데 교회마다 곤란한 것도 없지 않았거니와 특별할 만한 일도 적지 않았다. 호항 교회가 김형식을 담임목사로 청빙하였고,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힐로 교회가 예배당 대지 비용으로 3,000여 달러를 확보하였는데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장 목사와 교우들이 활동하였고 외국 친구들이 사랑스럽게 도움을 준 까닭이었고,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에게 치하할 바였다. 특별히 이은구의 마위 파이아 기독교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참석한 회원과 방청객 여러분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이날 회장 김형식 목사가 사회한 가운데 김요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였는데 중앙 이사원 3인으로 김형식, 장 봉 그리고 정운서가 선정되었고, 헌장 수정과 예산 통과가 순조로웠으며, 교회보를 매 사 1차씩 발행하기로 하였고, 이사부장에 박동완을 선임하였다. 1938년 2월 5일에 폐년 태평양 주보에 따르면 이은구는 1938년에 '민원봉 가족 이사가'를 펴냈다. 민원봉은 하와이에서 중학을 졸업한 후 1936년 10월에 상항을 거쳐 오레곤 주 포틀랜드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하였다. 그런데 2년 후인 1940년에 예순여섯 살된 이은구가 마우이섬 키오키아에 있는 폐결핵 요양소에서 요양하고 있었다 다행히 이른 일곱 살이 되던 1950년에는 다른 19명과 함께 호놀룰루에 있는 한인양로원으로 이동하여 거주하였다.

이은구는 1958년에 향년 85세로 호놀룰루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는 호놀룰루 인근 와이아래에 있는 오션뷰 공원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인대학생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9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 813-4499, www.lbcgoc.com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 Tel: (714) 481-2779,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시망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전 11:20 평일예배: 오후 7:30 영어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co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형자 목사 "세계속에서 살아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전용), Tel: (213) 210-6890 2333 Beverly St., Los Angeles,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jpac.org 170 Bimlin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 8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예배: 오전 9:15, 11:30 금요일예배: 오전 1:30(수영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 854-4010, www.bethelc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 22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세계선교회 담임목사: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 388-1827, www.wmcc.org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실비치 사랑교회 (Sea Beach Se-Feng Church)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5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타지역원 원장: 박순홍 목사 (LA복음선교회연합회협력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오후 4:30) 사역자역: 1. 영성사역자 2. 교회 관리사역자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 3. 알콜사역 4. 네트워킹사역 www.elpistafamily.org, Tel: (562) 894-6214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례기도: 365일 24시간 온/오프 Tel: (714) 446-6202, www.groceim.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행: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 479-4500, www.go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14) 646-9259, www.socals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ancejo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히비스산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후 6:30(토) 수요예배: "어성경이 읽어주세요" 수요일: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 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운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존 오웬(John Owen)의 기도에서 성령의 사역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Prayer)
명상기도의 형식의 본질과 사역에 대한 간단한 질문

제 5장 기도의 내용과 관련된 성령의 사역(1)

1. 우리의 부족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부족함을 기도와 간구 중에 하나님께 아뢰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기도와 간구 중에 우리의 부족에 대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1) 우리가 하는 기도의 주된 내용은 믿음과 불신앙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소서"라고 기도했으며(눅 17:5),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주여 나의 믿음을 없애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막 9:24). 만일 불신앙이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이고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면,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 되지 않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앙의 본질과 쓰임에 대해 확신을 가지듯이, 우리는 불신앙의 본질과 죄책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확신 없이는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 주님은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특별한 사역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 하시리라. 죄에 대하여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요 16:8,9).

우리는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자기 마음과 영혼에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어도 복음이 정죄하는 불신앙의 본질과 죄책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불신앙은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복음을 거스리는 죄를 짓는 것이며, 복음을 통해 우리의 불신앙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적인 양심이나 율법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의 불신앙의 죄책을 깨닫게 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 줄 수 없다. 우리의 어떤 본래적(innate)인 관념도, 어떤 율법의 가르침도 이에 도달 할 수 없다. 이렇게 깨닫도록 하는 것도 간구의 영으로서 성령의 사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불신앙의 본질과 죄책을 깨닫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본질과 필요, 효력 과 쓰임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 기도하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일 뿐

이다. 그런데도 기도의 모형으로 제시되는 대부분의 기도문들에서는 이런 것들이 거의 무시되고 있다.

2)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본질의 부패와 그로 인한 우리의 부족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이해의 어둠과 무지, 하늘의 일들에 대한 생소함, 그로 인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의 소외와 어둠의 그늘과 탐욕에 사로잡힌 마음의 정욕과 그의 은밀한 활동과 같이 본질상 우리의 의지의 어리석음과 완고함과 비뚤어짐과 영적인 일들을 꺼려하고 싫어하며 갖가지 간계를 만들어 내는 이 모든 것들은 신자들이 고백하고 간구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신자들은 이런 간구를 자신들의 의무로 알고 경험상의 죄와 거룩에 관련하여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가장 큰 관심거리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신자들이 이런 일들에 의해 마음이 거의 동요되지 않고 있다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들에 관하여 자비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며, 이런 문제들을 은혜로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모든 신앙과 계획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에 대한 지식과 감각, 명확한 이해가 없이는 누구도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기도할 수 없는데, 이는 그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식은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다. 우리의 본성은 자신의 타락을 스스로 깨닫지 못할 만큼 부패되어 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치료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할 모든 필요성을 제거해 버리는 것은 고대 교회가 펠라기안(Pelagian: 인간의 노력에 의한 구원을 주장함으로 416년 정죄받음)을 정죄한 이유이기도 하다.

소경된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볼 수 없으며, 우리의 본성은 오만해서 그것들을 소유할 수 없으며, 어리석어서 그것들을 느낄 수 없다. 우리가 하여금 깨닫게 하고 영적으로 보게 하며 관심을 갖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자신의 마음의 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추측할 수 없다. 이런 무지, 빛의 부족, 죄에 대한 깨달음, 본성의 부패, 심지어 변화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는 이런 잔재들은 그들의 열매와 결과, 효과들과 더불어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을 데마르게 한다.

그러므로 기도문 이상의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어진 단어들만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된다. 기도문 안에는 자신들의 상태가 잘 표현되어 있지 않음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본성의 부패와 마음의 내적인 악을 깨닫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조명이 없는 사람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불가능한 말이다. 만일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의 기능들이 부패했다고 판단했다면, 즉 이성 은 허영으로부터 자유롭게 못하며, 마음은 간계와 사악함으로부터 자유롭게 못하고, 의지는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못한다고 판단했다면, 그들이 어떤 근거로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경멸하면서 자신은 겸손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사람들은 사실상 때때로 잘못된 관념 속에서 영적인 것들을 좋아할 수도 있고, 미신적인 상식과 저속한 의복에 현혹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드러지는 모든 예배의 원천이며 생명이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추구한다면 우리 감정의 부패와 영적인 것들에 대한 혐오가 우리를 허영과 무질서에 빠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불규칙한 이러한 감정들을 죽이거나 바꾸거나 갱신하지 않고 간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은 홀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한다.

우리 감정의 영적인 불규칙성과 혐오감은 자연의 빛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부터 식별된다. 사도가 영적인 일들은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식별할 수 없다고 확신하여 말했다면(고전 2:14), 영적인 일들에 대한 우리의 감정의 무질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도 영적인 일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보편적인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자연의 빛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 마음에 사랑이 심겨진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다. (10면으로 계속)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성진리란 무엇일까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경험의 중요성을 잘 알 것입니다. 경험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언뜻 보기에 비슷하지만,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험해 본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기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문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처 다 상상하기 어려운 부와 명예, 권력과 스펙의 최고 경지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얼마나 재정적으로 부유했는지 당시 은(silver)은 귀금속 축에도 들지 못하는, 돌처럼 흔한 취급을 받았습니다(왕상10:27). 백성들은 하나같이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고(왕상 4:20) 외교적으로도 주위 모든 나라와 평화를 유지하며 강성대국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왕상 10:21,31). 그가 지은 천다섯 편의 노래는 지금의 월드 스타를 능가할 정도로 최고 인기를 누렸고(왕상 4:32) 해마다 세계 각국에서 이런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왕상10:24-25). 바로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Solomon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성공과 영광, 쾌락과 만족을 모두 경험한 후, 다음 세대에 남긴 현실적인 조언이 꼭 인상적입니다. 바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전도서 12:1)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로 모든 것을 통달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그가 우리 삶의 특급비결을 알려주었는데, 어릴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Remember your Creator in the days of your youth)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를 가만히 둘러보면, 다음 세대가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나 어려운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현대 문화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네스코 사무총장인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가 서문에 밝힌 것처럼 다음 세대의 흥미를 끌어 섹슈얼리티(Sexuality)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필자는 유네스코의 <국제 성교육 가이드>에서 강조하는 '문화적 의미의 성(性)', 섹슈얼리티(Sexuality)'에 방점을 찍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총 140페이지 분량 중 253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섹슈얼리티(Sexuality)를 무척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섹슈얼리티가 시급하고 중요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밝힌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성(性)의 개념은 매우 단순하고 선명합니다. 제3의 성, 교차적 성, 혼합적 성과 같이 복잡한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性)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性)의 개념을 섹슈얼리티(Sexuality)라는 문화적 의미를 차용해 설명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문화적 의미로 성(性)을 바라보면 옹고그들이 아니라 개인 또는 사회의 기호로서 성(性)을 받아들여게 됩니다. 성(性)에 대한 태도와 형태가 '문화'라는 장치를 통과하면서 모든 규범과 도덕적 개념, 양심과 분별에서 자유롭게 해방해 준다고 설명합니다. 이른바 '문화적 의미의 성(性)'은 일련의 '문화'이기 때문에 옳은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기 어려운 'No touch!'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性)은 생명을 잉태하고 번성하게 하는 '진리'라는 점입니다. 성(性)을 문화로 보는 관점과, 진리로 보는 관점은 감각이 매우 큼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좁혀질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진리란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사실에 근거하는 논리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많은 철학적 사고와 가치가 변하지만, 생명의 원칙은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친히 명령하시고 성(性)과 생명을 직접 연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성진리란 '성경적 의미의 성으로, 성(性)이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라고 인식하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성(性)을 일련의 문화로 보고 해석하는 섹슈얼리티(Sexuality)는 제3의 성을 비롯해 다양한 젠더를 사랑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무엇보다 성(性)의 가치를 쾌락으로 한정하여 '나와 너'의 생물학적 특성을 바꾸면서까지 생명의 요소를 파괴하고 맙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9면으로 계속)

Table with church listings including names, address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churches like 동부(NY,NJ)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etc.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삶의 안전장치

산다는 것은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삶은 매우 귀중한 기회이며 특권이며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허락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삶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삶을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소중한 삶을 잘 관리하지 못해 아픔을 당하거나 불행하

게 되는 경우를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산다는 것은, 삶은 '자동차 주행'과 같은 면이 있습니다. 속력을 조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해야 하기도 합니다. 함께 동승할 자를 잘 구별하고 선택해야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장치

를 잘 살피고 안전벨트를 잘 매어야 합니다. 자동차 주행과 같은 삶에도 안전장치를 잘 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안전장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그것은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위인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삶의 안전장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정상에 오르기를 바라거나 자녀가 특별히 잘 되기를 갈망하는 부모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보호를 받아야 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지 않으면 누구도 이 시대에 살아남기도 어렵고 성공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기도라는 안전벨트를 매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하루의 삶을 안전하게 하는 안전벨트이며 일생의 삶을 안전하게 하는 삶의 안전벨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져오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우연히 어느 영화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영화계에서 주연으로 출연한 횡수가 압도적인 그분의 간증입니다. 자기 집에는 <기도의자>가 있는데 어머니는 하루에 두세 시간 아들을 위해서 기도 한다고 합니다. 모든 가족이 기도할 이유가 있으면 그 <기도의자>에서 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삶의 안전벨트요 안전장치입니다. 기도가 없는 가정, 기도가 없는 사람, 기도가 없는 단체는 삶의 안전벨트가 없는 자동차 주행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주일 성수 예배라는 신앙의 안전벨트를 꼭 매고 살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못 나아가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적인 일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배의 자리에 가지 못할 이유가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시간으로 나아가감을 방해하는 사람이나 일들이나 환경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그 시련을 이겨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보호를 받으려면 좋은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즉 축복받는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인이 됨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

회가 보기에 좋은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이 보기에 좋은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문자답하여 좋은 교인, 좋은 일꾼, 좋은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안전장치가 되고 안전벨트가 됩니다. 끝으로 삶의 안전장치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인격과 겸손한 믿음은 자기 삶의 안전벨트가 됩니다. 겸손한 태도는 삶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절박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으면 삶의 안전과 행복과 축복이 보장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안전지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cyd777@hotmail.com



미주 장신대가 릴리재단으로부터 120만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미주장신대, 릴리재단으로부터 120만달러 지원금 받는다 "다음 세대와 그 이 후를 준비하는 신학 교육 기관 될 것"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이하 미주장신)가 지난 9월 30일 '릴리재단'으로부터 목사와 평신도 설교 교육 지원 프로그램 설립을 위한 1,244,735달러의 지원금을 받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ATS 270여 회원 학교 가운데 한인신학교로는 유일하게 미주장신이 81개의 지원 학교에 선정되었다. 이상명 총장은 "본교가 릴리재단으로부터 설교 지원금을 받을 학교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4차 산업 혁명과 장기간의 팬데믹 상황으로 교육 혁명이라 불리는 변화의 시기에 릴리 재단 지원금은 본교와 신학 교육 기관 및 조직이 도전을 변화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큰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지원금을 통해, 목사님들과 지역 리더들이 더욱 설득력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며, 다음 세대와 그 이 후를 준비하는 신학 교육 기관으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지원해 주신 릴리 재단에 감사 드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릴리 재단의 종교 부문 부사장인 크리스토퍼 코블(Christopher L. Coble)은 "이번 계획에서 지원을 받는 조직들이 목사와 다른 사역자들이 오늘날 필요한 종류의 설교에 참여하도록 돕고, 복음의 메시지가 모든 청중에게 들리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 릴리 재단은 개인과 가정의 종교적 삶을 돕고 미국 내 기독교 교회의 성장과 활력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2022년에 설득력 있는 설교 계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릴리 재단은 인디애나폴리스를 기반으로 1937년에 설립된 제약 회사인 '엘리 릴리 앤 컴퍼니(Eli Lilly & Company)'사의 주식을 증여해서 세운 사설 자선 재단이다. 그동안 지역 사회 개발, 교육 및 종교에 관해 지원해 왔으며, 미국 내 기독교회의 활력을 강화하고 목회자들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힘써 왔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는 미주장신대 외에 풀러신 학교,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그리고 라이프 퍼시픽 대학교가 그랜트를 받았다. <정리 박준호 기자>



신동국 원장(우측)이 강원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하는 모습

미국수사 신동국 원장, 강원대학교에 2억원 전달 "신동국 장학회 통해 인재 발굴에도 힘써"

미국 수사 신동국 원장(나침반교회 장로/Animal Medical Clinic 운영)은 지난 26일(화) 김명동 강원대 산학연구부총장, 정배동 수의과대학 학장,

윤장원 수의과대학 부학장, 박정호 수의예과장, 김상화 수의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2억원을 전달했다.

신 원장은 지난 2005년부터 모교인 원주 만종초등학교에 도서관 도서 구입 기금으로 매년 1,000달러씩 기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미국 수의사를 꿈꾸는 강원대 수의대 학생을 위해 '미래 재미수의를 위한 신동국장학회'를 설립하고 매 학기마다 개인적으로 500불씩 수십 명의 중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원주 출신의 신원장은 서울대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85년 미국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플로리다에서 Animal Medical Clinic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침반교회(담임 민경명 목사) 장로로 섬기고 있다. 한편, 신동국 원장은 서울대 수의대 자랑스런 동문상을 수상했으며, 재미한인수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2008년 수필집 '즐거움 만남과 삶 그리고 평한 이별'을 발간하는 등 문학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정리 이성자 기자>



한인연합감리교회 특별총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연합감리교 한인총회, 신임총회장 이창민 목사 선출 "사명의 회복을 통한 비전에 초점을 맞출 것"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는 10월2일(월)부터 5일(목)까지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담임 조선형 목사)에서 '2023 특별 한인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총회장에 이창민 목사(LA 연합감리교회 담임)를 선출했다.

역하는 600명에 달하는 한인 사역자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명의 회복을 통한 비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인으로 다양한 목회 현장을 섬기는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함께 협력하는 한인 총회를 만들겠다. 동성애 이슈

팬데믹과 교단 분리 및 탈퇴 논란으로 2019년 총회 이후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모인 이번 '특별한인총회'에는 미전역에서 한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 한인으로 영어 회중을 섬기는 목회자와 다음 세대 사역자, 기관 사역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된 이창민 목사는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200여 한인 교회의 사역자들과 성도들, 한인으로 영어 회중을 섬기는 목회자와 다음 세대 사역자들, 총회와 연회에 속한 기관 사역자들과 신학교와 원목, 군목으로 사

와 관련하여 한인 공동체에 속한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 전통 안에서 소신 있는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한인목회 강화협의회(사무총장 장학순 목사)와 공동으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2024년에 열릴 연합감리교회 총회를 대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 목사는 지난 몇 년간 연합감리교회에서 논란이 된 동성애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깊은 회개와 더불어 이에 따라 상처를 받은 모든 이들에게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를 대표해서 사과의 마음을 전하며 "비록 교단을 떠난 교회와 성도들일지라도 여전히 보듬고 사랑해야 할 지체임을 기억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존중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민 목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LA연합감리교회 담임, 서부지역 한인목회위원회 코디네이터, 한인목회 강화협의회 실행위원(교회성장담당)으로 섬기고 있다. <정리 이성자 기자>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

<8면에서 계속> 좋아성에서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인 성(性)을 성전리의 관점에서 배우고 연습하게 합니다. 네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성(性)은 문화일 뿐이야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시대의 흐름을 거절하고, 성경적 성 가치관을 통해 다음 세대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

게 얻는 성전리로 인도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 성품교육과 좋아성(BSE)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 시니어 목회를 위한 문의/상담은 201-693-1976, goodtreeusa@gmail.com로 연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goodtreeusa@gmail.com

Advertisement for NYU Langone Health FAMILI STUDY. It includes the study's name, a QR code, contact information (phone, text, email, website), and a list of bullet points describing the study's focus on diet, environment, and chronic diseases. The text is in Korean and mentions that the study is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world.

동부교계 게시판

뉴저지초대교회, 목회자 대학생 자녀 장학생 선발

뉴저지 초대교회(담임 박찬섭 목사)는 '2023년 목회자 대학생 자녀 장학생' 00명을 선발한다. 신청 대상은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목사, 전도사, 선교사)의 대학생 자녀 또는 상기 네 개 주에 재학 중인 목회자의 자녀이며, 신청 방법은 뉴저지 초대교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아래 링크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마감일은 2023년 11월 5일이다. 이메일 신청은 scholarship.committee@njchodae.org 온라인 신청은 www.njchodae.org or https://form.jotform.com/232674173306051

▲ 문의: 이시영 집사 (215-485-6582), 나민우 집사(201-888-8705)

[PA] 새한장로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위임목사 취임예배

새한장로교회를 1989년 10월 15일부터 만 34년 시무해 오신 담임 목사님의 원로목사(고원택 목사) 추대 및 위임목사(이은우 목사) 취임예배를 10월15일(주일) 오후 4시 본교회에서 드린다. 주소는 6 Summit Valley Ln, Oreland, PA 19075

▲ 문의: (215) 402-9922

[NY] 뉴욕기독교교회, 취임 및 형제교회 결연

뉴욕기독교교회는 고성민 목사 취임 및 기독교교회&뉴욕기독교교회 형제교회 결연 예배를 10월15일(주일) 오후 5시에 본교회 대 예배실에서 열린다.

▲ 문의: (718) 343-1593

[NY] 주사랑장로교회, 담임목사 위임예배

주사랑장로교회는 최성현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10월15일(주일) 오후 5시에 본교회에서 드린다.

▲ 문의: 718-229-8855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 제34회 정기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회장 정인수 목사)는 10월 16일(월) 오후 6시 산수갑산2에서 제34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문의: 718-909-6467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부흥회 이찬수 목사 초청

와싱턴중앙장로교회(담임 류승렬 목사) 교회설립 5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를 강사로 초청하여 10월27일(금)부터 10월29일(주일)까지 부흥회를 개최한다.

▲ 문의: 703-815-1200

뉴하트선교교회, 난민들 대상 2차로 영어 성경 과정 개설

중남미, 아프리카, 우크라이나 난민 등 참여

뉴하트선교교회(담임 정민철 목사)는 뉴욕에 온 난민들을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9월 29일 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7시 214가 뉴욕말알선교센터를 빌려 기초 영어를 가르쳤다. 베이스 이드에 위치한 거주시설(Anchor Inn)에 있는 250여 명의 난민 중에 120여 명의 난민이 신청했으나, 모두 받을 수 없어 56명만 등록을 받고 수업을 진행했다.

9월 29일에는 뜨거운 반응 가운데 종강 파티를 마쳤으며, 10월 13일부터는 영어를 성경으로 가르치는 두 번째 학기를 시작하는데 벌써 20여 가정이 등록했다.

정민철 목사는 첫 과정을 시작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며 "난민들을 위해 3개월 동안 영어를 가르치는 과정을 먼저



제 2회 목회자 감사의 날을 마친 후 사진촬영 했다

뉴욕장로연합회, 제 2회 목회자 감사의 날

"사랑의 씨, 선한 씨, 화평의 씨를 뿌리는 복된 자"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회장 황규복 장로)는 10월7일(토) 낮 12시 산수갑산2 연회장에서 제 2회 목회자 감사의 날을 개최했다.

'목회자 감사의 날'은 지난해 뉴욕교계 장로들이 목회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매년 10월에 목회자 감사의 날을 갖기로 정하고 올해로 2회를 맞았다.

제 2회 감사의 날 행사에 앞서, 뉴욕장로연합회 황규복 장로의 사회로 드려진 예배는 기도 유일용 장로, 설교 방지각 목사, 특별찬송 장로연합회, 축도 안창의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는 '심는 대로 (갈 6:6-10)'라는 제목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오늘 뉴욕장로연합회에서 목사님께 섬기는 것이 별거 없어 보이더라도 결과는 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사랑의 씨, 선한 씨, 화평의 씨를 뿌리는 복된 자가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날 뉴욕장로연합회에서 준비한 특별찬송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의 찬양곡에 "목사님 참 감사해요 그리고 그 말씀 따르겠어요.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라 말씀하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목사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사에 담아 찬양했으며, 목사님들을 위해 따뜻한 잠갑, 식사를 준비했다. 이날 행사는 박태규 목사(뉴욕새침장로교회)의 만찬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홍현숙 기자)



난민대상 2차 영어 성경 과정 참여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하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예정"이라고 했는데, 결국 성경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을 택했다.

뉴하트선교교회가 섬기는 난민들은 자녀들이 많은 가족 단위의 난민들이며 중남미에서

온 난민들이 중심이지만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 그리고 독특하게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들도 있다.

(정리: 김재상 기자)

퀸즈장로교회, 교회설립 50주년 감사예배

뮤지컬예배 'The Way' 10월29일 LIU Tilles Center에서

올해 희년을 맞은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10월 29일(주일) 오후 5시 Long Island University Tilles Center에서 창작 뮤지컬 'The Way'로 교회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예배를 드린다.

'The Way'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길으신 예수께로"(요 14:6)라는 의미를 담아 퀸즈장로교회가 지난 50년간 걸어온 길(은혜 받아 충성한 교회), 또 앞으로 걸어갈 길(비전 받아 달리는 교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이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해 유대민족의 부흥을 꿈꾸는 헤미야를 통해 이민교회의 복음적 사명을 되돌아보는 특별한 뮤지컬 예배이다.

퀸즈장로교회 담임 김성국 목사는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왔고, 길이 되시고 길을 만드신 주님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여전히 그 길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길 되신 예수님을 제시하는 50주년 감사예배가 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뮤지컬 예배 'The Way'는 예

수님을 증거 하는 자리로 선진세대와 다음세대가 함께 참여하며,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모든 민족의 언어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 말씀이 어우러진 뮤지컬 형태의 예배로 진행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일생을 노예로 보내야 했던 히브리인들은 시온을 그리워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는 두고 온 고국을 그리워하며, 마음껏 예배드릴 처소를 간구했던 헤미야의 꿈이었고, 미국으로 이민 온 우리 1세대들의 꿈이었다. 교회설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은 은혜 충성 비전 전진의 네 주제로 전개하며 다민족 연합 찬양대, 교회학교 연합 합창단, 청년 드라마팀, 특별 무용팀 등 400여명 이상이 출연한다.

특별히 다민족이 함께 드리는 본 예배를 위해 미주크리스천신문 산하 기독교문화사역 '히즈핑거'에서 '굿 프렌드' 통역 앱을 선보이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718-886-4040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현숙 기자)

뉴욕교협 50회기 후보 확정

회장 박태규 목사, 부회장 이창중 목사, 박마이클 목사

뉴욕교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만호 목사)는 10월 9일(월) 오전에 후보서류 심사의 시간을 가지고, 제50회기 최종 후보를 확정했다. 10월 23일(월) 하크네시야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열리는 49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진행된 과정을 통해, 서류를 접수한 후보 1명, 부회장 후보 2명을 모두 통과시켰다.

회장 후보는 박태규 목사(뉴욕새침장로교회) 단독이며, 부회장 후보는 이창중 목사(뉴욕동서교회)와 박마이클 목사(뉴욕한마음침례교회)이다(등록순). 평신도 부회장은 관례에 따라 이사장 조동현 장로가 등록했으며, 감사는 현재 감사인 김재룡 목사만이 등록했다.

선관위는 후보들이 제출한 서류와 신학교 졸업증명, 교단

확인, 교회 비영리단체 확인 등의 절차를 가졌다. 그리고 감사 후보 등록이 없을 경우에도 임명이 필요하다고 입을 보았다. 구체적으로 수준이 낮은 감사 임후보를 피하기 위해 다음 총회부터 총회 현장에서 등록하지 않는 감사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추천하여 총회에 상정하며, 신청비도 일부 받기를 기대했다.

선관위는 세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 이만호 목사, 법규위원장 허윤준 목사, 교협 총무 류승례 목사와 서기 김홍배 목사 등 4인은 자동위원이다. 증경회장단 2인은 한재홍 목사와 이재대 목사, 실행위원회 송일권 목사, 특별분과위원회 유상열 목사, 교협이사회 조동현 장로, 평신도 대표 손성대 장로 등 모두 10인이다.

(정리: 김재상 기자)



오른쪽부터 선관위원장 이만호 목사, 회장 후보 박태규 목사, 부회장 후보 이창중 목사와 박마이클 목사



2023 건축바자회 모습을 사진에 담다

퀸즈장로교회, 2023 건축바자회

"눈물로 씨를 뿌린 아름다운 성전"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2023 건축바자회가 10월 7일(토) 오전7시부터 오후7시까지 본 교회 지하천교실과 파크강장에서 열렸다.

바자회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사회 이광운 집사(남선교회 총회장), 기도 김미경 권사(여선교회 총회장), 설교 김성국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국 목사는 '거두리다 (시 126:5-6)'라는 제목으로 "무엇인가 선한 것을 거두려면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강조하며 "우리 선진들이 이민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다면 우리는 새로운 성전건축을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려 주의 전을 세우고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이름도 알 수 없는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주의 전에서 누릴 수 있도록 눈물로 희생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단을 거두어야 한다"고 설교했다.

개회예배 후에는 '내게 강강은 평화'를 찬양에 맞추어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었고 폐회예배 후에는 하이파이브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9월부터 시작한 건축바자회는 네 번의 소바자회와 한 번의 대바자회로 진행됐다. 대바자회가 열린 날은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어린아이부터 중고등부 모든 선교회, 다민족이 멈추지 않고 건축바자회를 즐기며 방만한 분들을 기쁨으로 맞이했다.

특히 건축바자회 전날인 10월6일(금) 고 윤영철 장로의 천국환송예배가 있었다. 윤장로는 이민 1세로 퀸즈장로교회의 처음 건축현금을 시작한 분인데, 이번 장례예배 때 모아진 조의금을 새성전건축을 위해 드릴 것으로 알려져 교우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 주었다.

(홍현숙 기자)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8면에서 계속)

따라서 이런 감정들을 죽이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향해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신자들이 기도해야 할 필수적인 부분이다. 성도들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빛과 자각(conviction)이 아니라면 이런 일들에 대해 알 수 도 느낄 수도 없다. 이런 일들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의 생명과 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언약과 은혜와 거룩과 다른 특권들에도 적용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 깨닫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영적인 개념이나 올바른 이해뿐

아니라 통찰력도 가질 수 없다. 이런 일들에 대한 인식이 없이, 어찌 기도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기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그런 기도는 세상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일 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결코 자신의 영혼에 유익한 것이 아니다. 성령을 통해 죄와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의 내용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빛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 위로부터 더 나은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차이는 결코 극복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약속을 따라 성령께서 더 풍성히 역사하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younsklee@hotmail.com

피종진 목사 10월 부흥성회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향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1(주일) 오후 2(월) 오전 김포 김립교회(조경숙목사) 010-8222-1992
세계 청소년 마약감시단 (World Drug Watchdog) 서울대회 (대회장 홍성선 목사) 010-9977-5606

3(화) 정오 4(수) 오후 권대일목사 Meeting Ceremony
서울 강남순교교회 (오승준 목사) 010-3942-8434
전남 광주 빛고을교회 (김선주 목사) 010-3145-6682
주최 : 한기여총 (대표총재 권영자 목사)

5(목) ~ 6(금) 천안 위대한약속교회 (윤재민 목사) 010-6352-0691
8(주일) 저녁 서울 꿈이있는교회 (김용희 목사) 010-7291-0291
9(월) 오전 서울 서초 Unit and Core 기도성회 주최 : Tent Makers Mission 대표회장 (남보석 목사) 010-7220-0733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동서울노회 (노회장 박성은 목사) 정기노회 장소 : 서울강남세곡교회 (박의서 목사)

9(월)~10(화) 서울 주찬양복음교회 (이은혜목사) 010-8215-8295
11(수) 오후, 저녁 구리 성민중앙교회 (강영준목사) 010-9260-1091
13(금) 오전 대한민국 국회교회 (이수용목사) 국회구기기도회 010-2508-3344
장소 : 여의도 컨벤션호텔 정국정

14(토) 오후 서울여전도회관 주최 : 국제비전부흥사(이사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15(주) 저녁 서울 열린교회 (김희준 목사) 010-8633-0191
17(화) 오전 세계 여성지도자 정책심포리 (World Women Leaders Policy Sympony) (대표회장 장상 전 국무총리, 이사장 피종진 목사)
장소 : 서울 Press Group Center

18(수) 오전 District Office Passport Issuance
19(목) 오전 군포 돌연동산교회 (이세환 목사)
20(금)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사랑목사) 010-8331-3431
22(주) 저녁 서울 중앙장로교회 (전정호 목사) 010-7291-3377
23(월)~25(수) 오후, 저녁 서울 삼각산선자수도원 (원장 김승자 목사) 010-3709-4968

26(목) 오후 남경선 기도원 (원장 김대성 목사) 주최 : 한국기독교부흥사 총연합회 대표회장 (성관성 목사)
28(토) K Blessing MT
31(화) 새벽 제55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장소 : 서울 신라호텔
서울강남순교교회 (오승준 목사) 010-3942-8434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k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2023 남가주신학대학교 연합 설교페스티벌 입상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 남가주신학대학교 연합 설교페스티벌

미주장신대 오일혜 전도사 영예의 우승차지

미주성서화운동본부(대표 공동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가 주최하고 베데스다대학교가 주관한 2023 남가주신학대학교 연합 설교페스티벌이 7일(토) 오전 10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려 영예의 우승에 미주장신대가 차지했다.

차세대 지도자로서 장차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현장에서 사역할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교문화를 정착시키고 말씀의 잔치를 펼쳐 차세대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설교페스티벌은 신학교협의회(ATC, ABHE, TRACS)에 인가된 학교 중 총 8개의 한인신학교가 참가하여 은혜롭고 도전이 되는 말씀을 전했다. 이번 설교페스티벌은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본문의 (구약) 사 40:9-11, 52:7, 61:1-3, (신약) 막 8:35, 행 20:22-24, 롬 1:16-17, 엡 6:19, 빌 1:27-30, 골 1:6 중에서 선택하여 12분 분량으로 설교준비를 하게 했다.

심사위원장 김은철 교수(미주장신대)는 "이번 설교페스티벌 참가자들은 모두 열정이 있는 설교를 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다"며 "설교는 논리를 설명

하는 것이 아닌 약속과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며 열정과 감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결국 설교는 적용부분을 위해 달려 가는 것"이라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이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자들은 코리안어메리칸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이 한국교회가 K처치 무브먼트를 일으킬 때다.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는데 코리안어메리칸 교회가 반전을 이룰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설교페스티벌 수상자 명단이다. △설교우수상(상금 \$2000) 오일혜 전도사(미주장신대학교), △설교도모범상(상금 \$1700) 김현숙 전도사(베데스다대학교), △설교주해상(상금 \$1500) 강석변 전도사(미성대학교), △설교전달상(상금 \$1300) 이재민 전도사(그레이스미션대학교), △설교비전상(상금 \$600) 이영숙 전도사(헨리아켄젤러대학교), △설교발전상(상금 \$600) 박낙현 전도사(에반겔리아대학교), △설교부흥상(상금 \$600) 손중수 전도사(월드미션대학교), △설교은혜상(상금 \$600) 김동현 전도사(국제개혁대학교)

(박준호 기자)



생명의전화 창립 25주년 기념 감사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생명의전화 창립 25주년 기념 감사예배

"지난 25년간 선한사마리아인의 심정으로 사역 감당"

생명의전화(회장 바다윗 목사) 창립 25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7일(토) 오후 4시 돌로스 선교교회(담임 황의정 목사)에서 열렸다. 바다윗 목사는 "생명의 전화는 고독한 인생길에서 절망하며 지친 동료들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며 열쇠가 되시며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체험하게 인도하고 주님의 구원의 손을 잡도록 이끌어주는 선한사마리아인의 심정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오늘에 이르기 까지 기도과 후원금으로 격려해주신 교회와 개인들에게 감사사를 드리며 25년간 열악한 상담실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온 헌신적인 상담봉사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다윗 목사 인도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서호석 목사(나성평화교회 담임, 제6기 상담봉사원)가기도 했으며, 박철편 전도사(제25기 상담봉사원 회장)

가 성경봉독을, 남가주목사중장단(지휘 서문욱 목사)이 특별찬양했다. 이어 김준식 목사(남가주살롬교회 담임)가 '이미 주신 삼대 축복(사 30:20-22)'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오위영 목사가 특송했다. 이어 이정현 목사(한기총 미주지역 대표회장)가 축사했다. 이날 이기수 봉사자(3기)가 4000시간 상담봉사원 감사패를, 조성심 봉사자(6기)가 2000시간 상담봉사원 감사패를 수여받았으며, 김태현 봉사자(22기)가 500시간 상담봉사원 감사패와 메달을, 그리고 잔 김 봉사자(21기)가 300시간 상담봉사원 감사패와 메달을 수여받았다. 또한 24기 상담봉사원 로라 김, 이양한, 장진희, 전미경, 조상기, 비키 최 씨가 인턴십 수료증과 상담원증을 수여받았다. 이날 예배는 이태환 목사(남가주한인기독교원로목사회 전회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두렵돈 장학재단 창립 24주년 감사예배 및 장학금수여식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야"

두렵돈 장학재단(회장 조진휘 집사) 창립 24주년 감사예배 및 장학금 수여식이 7일(토) 오후 5시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에서 열렸다. 조진휘 회장 사회로 열린 24주년 감사예배는 장국현 총무가 기도했으며 김창군 목사(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딤후 6:11, 1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창군 목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정하며 살아야 한다"며 "오늘 본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라 말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세상가운데 나타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진목 장로(재무)가 연혁 및 소개를 했으며 김창군 목사가 축도했다. 장국현 총무 사회로 시작된 2부 장학금 수여식은 본장학재단 임원들이 이날 참석한 장학금 수여자들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김기훈 목사(텍사스 사우스웨스턴 신약학 철학박사과정), 김희영 전도사(뉴올리언스 침례신학교 목회학석사과정), 박요셉 목사(뉴올리언스 침례신학교 목회학 박사과정), 배시은 목사(남침례신학교 목회학 박사과정), 유영인 학생(휘튼대학교) 등 장학생들의 영상편지를 소개했다. 다음은 수혜자 명단이다. 구분 수 선교사, 김기훈 목사, 김태경 집사, 김희영 전도사, 박보배 전도사, 박요셉 목사, 배시은 목사, 양현우 전도사, 유영인 학생, 전소연 전도사, 남미선 권사, 신상순 권사, 아프리카카미레재단신학생 10명, 니카라과 신학생 10명

(박준호 기자)



두렵돈 장학재단 창립 24주년 감사예배 및 장학금수여식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할렐루야한인교회 창립45주년 기념 이천 목사 찬양집회가 열렸다

할렐루야한인교회 창립45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이천 목사 찬양집회 개최

할렐루야한인교회(담임 송재호 목사) 창립45주년 이천목사 찬양집회가 8일(주일) 오후 3시30분에 열렸다. 이천 목사(새가나교회/LA)는 "주님께서 섬길 수 있도록 불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놀라운 은혜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매우 긴 것처럼 생각된다. 하지만 하나님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의 고난이 잠깐이라 여겨질 정도일 것이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재호 목사 개회기도로 시작된 찬양집회에서 이천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만 바라보아라', '하늘론', '일어나라 주의 백성',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를 불렀으며 박갑수 목사와 듀엣으로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가장 행복한 사람'을 불렀다. 이어 합심기도시간을 갖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 이천 목사가 인도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창립45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본교

회 할렐루야 찬양팀 찬양인도와 송재호 목사 인도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신영철 장로가 기도했으며 박갑수 목사와 클로이신 권사가 특송했다. 이어 송재호 목사가 '교회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사 60: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송재호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제9회 찬양선교음악회에서 참석자들이 다함께 찬양하고 있다

제9회 찬양선교음악회

미주찬양선교회(대표 이재근 목사)가 주최한 제9회 찬양선교음악회가 8일(주일) 오후 6시30분 생수의강선교회(담임 최형규 목사)에서 열렸다. 이재근 목사는 "2004년부터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돕기 위해

서부교계 게시판

2023년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은 ANC은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와 공동주최로 20일(토)부터 21일까지 '차세대 리더양성'이라는 주제로 2023년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 첫날 오후 6시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 김태형 목사(ANC 은누리교회 담임), 에릭 카터 박사(베일리대학교)의 개회연설과 함께 진행된다. 개회연설에 이어 진행되는 기조연설에서는 새들백교회(Saddleback Church)의 공동장립자이자 릭 워렌(Rick Warren) 목사의 아내인 케이 워렌(Kay Warren) 사모의 설교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다. 둘째 날인 21일에는 특수교육 전문가, 주류 교회 및 한인교계의 장애사역자 15인의 장애사역 전문가가 '차세대 장애사역 리더양성'과 '포용성(Inclusion)' 등 이 외에도 전반적인 장애사역의 핵심이슈에 대해 패널토의와 함께 12개의 주제강연을 발표한다.

▲ 문의: (714)484-1190

쉴비취한인합창단 제11회 정기연주회

쉴비취한인합창단(지휘 백경환 목사) 제11회 정기연주회가 백경환 성가의 밤으로 14일(토) 오후 4시 가나안교회에서 열린다. 이날 연주회는 쉴비취한인합창단, 쉴비취남성중창단, 소프라노 이영주, 테너 전승철이 출연하며 피아노는 조애영, 율간은 이종은이 맡는다.

▲ 문의: (562)667-7071(김형구 단장)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가을말씀부흥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 가을말씀부흥회 마지막 집회가 8일(주일) 예배시간에 갖는다. 강사는 정주성 목사(나무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1부예배(오전 8시) '내 영혼의 나병(막 1:40-44)', 2부예배(오전 9시45분) '내 마음의 건장증(막 4:35-41)', 3부예배(오전 11시30분) '내 인생의 십자가(막 7:24-3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다.

▲ 문의: (714)893-1652



출판기념식과 신인상 시상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미주크리스찬 문학 출판기념회 및 시상식

"소명 의식을 갖고 문학이 사역이 되게 하라"

미주크리스찬문학(회장 임영호 목사) 제34집 출판 기념회 및 신인상 시상식이 10월7일(토) 오전 11시 영성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임영호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제1부 예배는 김중용 목사(시인/총무) 기도, 백승철 목사(시인/에피포도 예술인협회 대표) 설교, 축도 원희천 목사(수필가)로 진행됐다. 백승철 목사는 마태복음 6:26-30을 중심으로 '생각하여 보라'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자기의 관점과 시각으로 투영해서 "크리스천 작가는 단순히 글을 쓰고 발표하는 단계를 뛰어 넘어 소명 의식을 갖고 문학이 사역이 되게 하라.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며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해서 전하는 것이 크리스천 작가의 사명"이라고 권고했다. 2부 출판기념식은 방동섭

목사(시인)의 사회로 시작되어 임영호 목사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편집장 정지윤 목사가 편집 과정과 서평을, 고영준 목사(시인/문학 평론가)의 축사와 남정숙 박사(시인)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 임영호 회장의 사회로 시상식을 거행했다. 시상식을 위해 소프라노 부활절 백합) 신민아(노무의 시) 임창국(낙엽 밟는 소리) 권영호(오직 예수)의 시 낭송이 있었으며 송종록 목사의 폐회 기도를 끝으로 참석한 모든 이들이 "나의 살던 고향"을 함께 부름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시 부문: 신민아, 이경영, 권영호, 임창국, Korea Kim △산문(생활 수기): 한익승 △문학공로상: 정지윤 시인

(이성자 기자)

악한 영과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평안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용 목사(유엔아이 장로교회 담임) 개회기도와 엄미나 아나운서 사회로 시작된 이날 찬양선교음악회는 오렌지미션 콰이어(지휘 강민석), LA목사중창단(지휘 서문욱), 남가주장로성가단(지휘 장진영), 소노로스싱어즈, LA남성선교합창단(지휘 원영진), 남가주장로중창단(지휘 장진영), 바리톤 장상근 씨가 출연하여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렸다. 이날 음악회는 연합합창에 이어 최형규 목사 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SBM Conference 개최



컨퍼런스를 마치고 발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앞줄 중앙 황의영 목사)

BM국제본부(총재 황의영 목사) 주최 231st SBM International Conference가 지난 10월 5일(목), "SBM 3대목표(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 실천 과제"라는 주제 아래 SBM Art Hall(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4번길 14)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컨퍼런스

에 앞서 드러진 개최예배에 이어 각국 대표로 일본:노학희선교사(동경 아야세동부교회), 아르헨티나:황연규 선교사(두란노 선교신학교 학장), 네팔:Rup Narayan Timsina 목사(네팔신학교 학장), 우저버 권태웅 선교사, 필리핀:송성호 선교사(WMC-ALIDE

표), 한국:전영천 목사(풍암교회)의 상황 발표와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교회 현황 영상보고가 있었다.

이들의 보고를 종합하여 COVID-19 Pandemic 이후의 교회와 선교현장의 제반 문제점들을 진단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교회가 점점 침체, 쇠퇴, 몰락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성장동력을 살리는 해법이 절실히 요구됨을 전제하고 황의영 목사는 그 결정적 처방으로 '메아리치는 목회'(ECHOING Ministry)를 제안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하자"는 홀리오 목사(아르헨티나 장로교회 총회장)의 결론을 결의하고 막을 내렸다. 자세한 문의는 sbmusa@hanmail.net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SBM한국본부)



평안한 숙소에서 선교의 꿈 키우도록...

한국해외선교회, 이달 말까지 훈련 숙소 리모델링 모금 운동

하얀 티셔츠를 맞춰 입은 이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강공원을 거닐며 선교를 위한 걷기 모금 운동에 동참했다.

한국해외선교회(GMF)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함께 걷는 행사 '런포미션(Run for Mission·사진)'을 개최했다. GMF는 10월 한 달간 선교사 훈련 숙소 리모델링을 위한

걷기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가족동반으로 산책을 즐겼다. 홍정길 이동원 이재훈 목사 등 150여명의 참가자가 모여 한국교회 선교를 위해 함께 걸었다.

'런포미션'을 비롯한 GMF의 걷기 모금 운동은 불복제인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진행된다. 앱으

로 참가비 1만원을 낸 후 모금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한걸음당 1원씩 지급되며 별도로 후원하고 싶은 이들은 추가 재정보조도 가능하다.

권성찬 GMF 대표는 "모금된 돈으로 리모델링할 훈련 숙소에는 아이들과 함께 선교를 준비할 젊은 선교사 가정, 선교지에서 여러 질문을 안고 들어와 선교를 준비할 선교사 가정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선교훈련으로 한국교회 선교를 살리고 세계선교에 유의미한 공로를 할 수 있도록 10월 한 달간 함께 걸여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상희(54) 선교사는 "선교훈련원 리모델링은 단순히 건물만이 아닌 변화된 세상 속 적절한 훈련을 받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 지속가능한 사역을 하는 건강한 선교사들이 배출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30세 이전 결혼해 자녀 3명 낳는 저출산 운동 펼치자"

9일 서울 연세중앙교회에서 '나라를 위한 특별기도성회' 열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 낙태 합법화 반대,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목회자와 성도 3만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한글날인 9일 서울 구로구 연세중앙교회에서 '내가 기도해야 할 나라를 위한 특별기도성회(사진)가 열렸다.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참석자 3만5000여명은 한국 사회를 위해 회개 기도뿐 아니라 국가적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합심 기도를 했다. 이병천 큰터교회 목사는 '저출산 다음세대'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명

을 지킨 이들을 천대까지 축복하겠다고 하셨다"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함께 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에 이어 지난해 0.7명에 불과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30세 이전에 3명 이상을 출산하는 '303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문화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자"며 "저출산 고리를 끊고 다산의 복이 흘러가는 거룩한 나라가 되려면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동참해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기복 바른여성선교회 대표, 조영길 범무법인아이엔에스 변호사, 이희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등이 강연했다. 윤석전 연세중앙교회 목사의 소개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를 전했다.



한국 순례객 비상... 성지순례 연말까지 올스톱

이·팔 전쟁... 중동 평화 위한 기도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면전이 발발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후 가까스로 재개된 성지순례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성지순례가 뜰 끊긴 팬데믹 당시의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흘째 사망자가 1360명 이상 나온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중동의 '살림'을 위한 세계교회의 중보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장기 체류하는 한국인은 예루살렘 290여명, 텔아비브 등 중부 지역 210여명 등 570

여명이다. 목회자와 선교사를 중심으로 교민들은 서로의 안전 소식을 공유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팬데믹 후 모처럼 '문전성시'를 이룬 이스라엘 성지순례엔 비상이 걸렸다. 당장 이스라엘에 머무르고 있는 순례객의 안전 귀국이 제1의 과제로 떠올랐다.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팀을 인솔 중인 천지투어 소속 가이드 이동환씨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하마스의 첫 공격이 있었던 가자 지역 인근은 갈 수 없으며 요르단 서안과 사해, 요단강 인접 지역도

관광객 접근이 불가능하다"면서 "일부 성지순례팀이 여리고를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현재는 모두 안전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14만명가량의 관광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이드는 "텔아비브에서 출국해야 하는 팀은 모두 항공편 정상 운항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성지 가이드 30년 경력의 이강근(유대학연구소장) 박사는 "하마스가 첫 공격을 한 지난 7일(현지시간)부터 오는 12월까지 성지순례 계획이 전면 취소됐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어 "팬데믹 후 성지순례가 재개되기까지는 1년 정도 시간이 더 걸렸다"며 "올해 말까지 전쟁이 이어진다면 내년 2~3월까지 성지순례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했다.

성지전문 방송을 운영하는 한국성서지리연구원장 홍순화 주심교회 목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비행기 표가 없을 정도로(성지순례객이) 대기 중이었는데 전쟁으로 여행 취소가 불가피해졌다"며 "인생 버킷리스트로 성지순례를 계획한 성도들이 많은데 안타깝다"고 전했다.



"아빠! 교회 캠핑 같이가요" ...무교 아버지, 영접기도문 읊다

기독교 싫다던 아빠가 초신자 신앙학교에 들어가기로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 맞춤형 캠프를 비롯해 산책과 레크리에이션 등을 즐겼다. 이어 저녁 식사는 바베큐 파티로 진행됐다. 조리장 안에는 가정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화목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행사를 기획한 맞춤형도입 강희창 팀장은 "복음으로 다가가기보다는 가족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열고 교회의 인식을 바꾸는 것에 우선 초점을 뒀다"면서 "궁극적으로는 가족 전체가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앙의 기반을 다지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일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전한다는 목적에 맞게 가정의 화합을 이끄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캠핑장에 도착한 가족들은 교회가 준비한 흥건강 보

트 맞춤형 체험을 비롯해 산책과 레크리에이션 등을 즐겼다. 이어 저녁 식사는 바베큐 파티로 진행됐다. 조리장 안에는 가정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화목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CCM 가수 구현모의 특별 공연도 마련됐다. 공연도 찬양이 아닌 가요 위주로 구성됐다. 마지막 곡은 가수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였다. 구슬픈 곡조가 참석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들은 소매로 눈물을 훔치거나 고개를 들어 울음을 참기도 했다. 마음의 문이 열린 현장에서 여성인 전도부장이 축도했다. 마지막 순서는 '불명 타임'이었다. 강 팀장은 무대에 올라 전도팀에서 준비한 질문카드를 나눠줬다. 카드에는 평소 전하지 못했던 '내가 가족에게 바라는 것' '위로받고 싶은 말' 등의 주제가 담겼다. 카드를 받은 가정은 캠프 파이어 불꽃 앞에서 가슴 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를 나누며 속마음을 공유했다.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행사에 참여한 이학진(42)씨는 "좋았다고 단순하게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아주 의미 있는 행사였다"면서 "특히 마지막 순서였던 '불명 타임'에 가족들의 진심을 들을 수 있어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씨는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교회에서 운영하는 아버지학교에 들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다짐했다.

온누리교회 맞춤형도입은 이씨 같은 아버지를 위해 '아빠 캠핑가자'의 후속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맞춤형도입은 신앙생활을 더 배우고 싶은 아버지들을 위해 초신자 신앙 학교 두란노아버지학교(이사장 최성완 장로)를 연계해 준다. 이 목사는 "아버지는 자녀의 정체성을 세우는 거울이자 가정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며 "아버지의 믿음은 우리 자녀들의 인성과 세계관,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래교회 초대 담임은 캐나다인" ...한인교회가 알린다

해외한인장로회 캐나다 동노회, '맥켄지 기념사업' 추진

캐나다인 담임목사가 부임 1년 만에 사망했다. 향년 34세였다. 헛된 죽음은 아니었다. 교

단이 팔을 걷어붙였다. 3년 뒤 선교사 3명이 왔다. 이후 선교사 200여명이 하나둘씩 파송된다. 조선에 도착한 선교사들은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세우면서 조선인을 섬겼다.

캐나다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8일, 캐나다 헬리팩스한인교회(최병필 목사) 주일설교는 역사 수업에 가까웠다. '한국 최초의 자생교회'인 소래교회 초대 담임목사 윌리엄 존 맥켄지(사진·1861~1895) 선교사가 메시지의 주인공이었다. 이날 최병필 목사는 설교 '맥켄지의 선물'(잠 18:16)에서 "자비량 선교사였던 맥켄지 선교사의 죽음은 캐나다 교회가 조선 선교에 관심 두게 된 불씨가 됐다"며 "교회 교육관 내

최근 마련된 선교관에 방문해 선교사들의 정신과 신앙을 본받자"고 요청했다. 앞서 해외한인장로회(KPCA) 캐나다 동노회(노회장 유은상 목사)는 지난 4일(현지시간) 이 교회에서 맥켄지 선교관 개관식을 열었다. 맥켄지 선교사 추모 동판도 같은 날 교회 회관에 세워졌다. 선교관엔 서울 연동교회(김주용 목사) 초대 목사 제임스 게일(1863~1937)부터 한국 의료선교의 선구자 로제타 홀(1865~1951) 등 캐나다 출신 선교사 200여명의 사역도 소개돼 있다.

선교관·동판 공사에는 교인들이 직접 나섰다. 이 교회 조총련 장로는 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교관을 꾸리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며 "교회 차원에서 멕시코 빈민가의 개척교회를 7년간 지원해왔는데 복음에 빛난 자의 마음으로 더 열심히 선교사역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사업 준비위원장인 이요한(토론토 소금과빛염광교회) 목사는 "다른 외국 선교사들보다 캐나다 선교사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건 당시 캐나다 교회들이 함경남북도 간도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캐나다 선교사들의 사역이 한국교회에 널리 알려질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주 크리스천신문 구독문의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213)674-7982,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400
nycpress@gmail.com

mission 선교의 창 (225)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기독교적 시각에서 본 전쟁(戰爭)

중동의 화약고가 다시 폭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حماس, Hamas)가 지난 7일(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을 7,000여발의 로켓으로 기습 공격했다. 이번 사태는 이스라엘 판 9·11 테러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낳고 있다.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전쟁"을 선포하면서, 10일 현재 나흘째 보복공습을 하고 있으며 지상군 투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지난 1973년 시리아와 이집트의 이스라엘 침공 이후 50년 만에, 5차 중동전쟁으로 변질 수도 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약 없이 이어지는 와중에 터진 또 다른 화약고는 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리다가 제 3차 대전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 비극이 더 커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종든 삶든 인류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이다. 몸에 작은 가지 하나만 박혀도 온 신경이 그 쪽으로 쏠리듯 지구촌의 한 전쟁은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마련이다.

1. 아버지규한(阿鼻叫喚) 속의 신음소리

아버지규한이란 그 끔찍함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지금 이슬람주의 무장단체인 하마스의 통치지역인 가자지구에는 양 세력의 충돌로 무고한 백성들이 살상을 당하며 극도의 공포 가운데 있다. 전쟁 발발 사흘 만에 양측에서 1,600명 이상이 숨

지고 6,000명 이상이 다쳤다. 약 100여명 이상의 이스라엘인이 하마스 대원들에게 인질로 잡혀 있다. 저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 가히 상상이 안 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참상도 마찬가지이다. 뉴욕 타임스(NYT)는 전쟁이 시작된 지 18개월째인 현재 러시아군에서 사망자는 12만 명, 부상자는 17만~18만 명으로 집계됐고 우크라이나 군에서는 사망자 7만 명, 부상자 10만~12만 명이 추정된다고 했다.

도 높다고 한다. 그런데 인간은 문명화 이후 살상률이 10~20배나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동물들은 근본적으로 먹이와 성(性)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벌이는 개체 간의 이익과 욕망의 싸움이다. 반면 인간끼리의 대결은 폭력 자체, 즉 상대방을 말살하고 멸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때가 많다.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소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어떻게 동물보다 못할 수가 있던 말인가? 아이러니하다. "육신

두 국가의 사상자를 합치면 러시아 측에서 30만 명, 우크라이나 측에서 20만 명, 도합 50만 명이다. 오호통재(嗚呼痛哉)라. 이미 죽은 사람은 아무 소리가 없다. 하지만, 아들딸을 잃은 가족의 탄식소리, 팔과 다리를 잃고 고통 속에 있는 부상자들의 외마디 소리, 포로로 잡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의 신음소리, 철축같이 어두운 밤 잠호 속에서 새우잠자는 군인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분노, 눈물, 절망, 슬픔, 두려움의 절규가 하늘에 상달되고 있을까?

2. 인간 폭력의 기원

무리 생활을 하는 영장류(靈長類)는 일반 포유류보다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이 두 배 정

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5). 이렇듯 인간은 개인이든 종족이든 누구나 자기중심적이며 탐욕이 있다. 욕심이 장성하여 집단 이기주의화 하게 되면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으로 비화되기 일쑤다. 집단 전쟁이 발발하면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가 내리막길을 달리듯 멈추기 어렵다. 그 후과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상이 도래한다. 특히 현대전은 고도로 발달된 살상 무기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들이 죽거나 다치고 생태환경은 축대밭으로 변한다. 놀라운 사실은 인류가 이러한 결과를 알면서도 전쟁을 지속해왔다는 것이다. 미국의 철학자였던 윌 듀런트(Will Durant)는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해수는 고

작 29년"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판을 칠 세상에서는 과연 어떤 전쟁이 도래할 것인가?

3. 전쟁에 대한 3가지 견해

전쟁과 관련해서 기독교에는 3가지 견해가 있다. 평화론(平和論, Pacifism Theory), 성전론(聖戰論, Holy War Theory), 정당론(正當論, Just War Theory)이다. 평화론(平和論)은 전쟁과 폭력을 무조건 반대한다. 무저항 비폭력 혹은 반전을 주장한다. 이유인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전쟁은 제6계명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완악한 원수들을 쓸어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희생을 통하여 끝까지 평화를 추구하셨다. 그 의미는 평화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다. 성전론(聖戰論)은 상대방이 선제공격(先制攻撃)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대의(大義), 즉 큰 목적을 갖고 있는 전쟁은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전이란 전쟁을 신성화하는 것이

의 죄 성을 생각한다면 과연 평화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는가? 성전론(Just War Theory)은 인간의 뜻을 신의 뜻으로 동일시할 위험이 있다. 자기는 의롭고 상대는 악하다고 여겨 ISIS처럼 극단적인 악행을 하게 된다. 십자군운동이나 이슬람의 지하드 등 성전론은 공통적으로 그들의 신(神)을 오해해 왔다. 기독교회는 역사적으로 '정당전쟁론'(正當戰爭論, Just war theory)을 지지해 왔다. 비록 살인을 하면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평화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악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득불 의로운 전쟁(just-war)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어거스틴의 생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는 다음 몇 가지 조건(The Code of War)아래 전쟁을 허용했다. "*전쟁은 정당한 목적, 즉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전쟁의 태도와 행위, 즉 폭력이나 약탈, 대학살이 배제되어야 한다. *전쟁은 합법적 권위 아래 수행되어야 한다. *수도승과 성직자는 절대로 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

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첫째 선지자적 역할이 필요하다. 전쟁이 터진 후에는 이미 늦다. 미리 예견하고 긴장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하며 피차간에 화목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는 왕적 역할이다. 이는 현재형이며 다스림을 의미한다.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난 곳에 교회가 방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평화와 살상이 멈추도록 온갖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셋째 제사장적 역할이다. 전쟁이 끝난 곳에는 탄식과 울분과 아픔이 하늘을 찌른다. 이곳에 인간의 말과 도움으로는 저들의 상처를 싸매 수 없다. 누가 양심이 마비된 침략자들을 회개게 할 수 있는가? 누가 한 맺힌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겠는가?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

맺음 말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20세기가 이데올로기(Ideology)로 말미암는 전쟁이었다면, 21세기는 문명 간 종교 간 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일찍이 한스 쿡(Hans Küng)은 각 종교가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며 포교나 선교에 힘쓰면서도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종교간의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의 주장은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의 안녕을 위해 전쟁을 막아보자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평화는 "히브리어: 샴롬, 아랍어: 샴람, 헬라어: 에이레네, 라틴어: 파克斯, 중국어: 평안"이다. 샴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적극적 개념이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되 비폭력적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구현되도록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선교의 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Jrsong007@hanmail.net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인간끼리의 살상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인간의 탐욕이 장성하여 집단 이기주의화로 뭉치면 전쟁으로 비화된다. 교회는 개인 영혼구원뿐만 아니라 사회구원에도 책임 역할을 해야 한다.

*정당한 전쟁이 되기 위해선 그것이 최후수단이어야 한다. *비무장 민간인을 보호하는 분별성이 있어야 한다. 전쟁의 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보다 커야한다는 비례성을 지녀야만 한다."

5. 교회의 3중적 역할

우리 교회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그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개인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하지만 인류가 존재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마 6:10)가 미칠 수 있도록 사회 구원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빛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가 미치는 곳에서는 결코 다툼이나 전쟁이 일어날 수 없

다. 11세기부터 시작된 십자군 전쟁이 대표적이다. 악이 지배하는 곳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기에 선을 위해서는 무력행사도 합당하게 여긴다는 이론이다. 정당론(正當論)은 가급적 전쟁은 안 하는 것이 좋지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틀테먼 상대방이 사악한 목적으로 침공했을 때 당하고만 있어야만 하는가? 이때는 영토, 국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마땅히 방어권을 수행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4. 어거스틴의 전쟁규약(The Code of War)

이상적으로는 평화주의(Pacifism Theory)가 최고다. 그런데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

C. S. 루이스의 생애 산책 (12)

C. S. 루이스 아버지 앨버트 제임스 루이스(Albert James Lewis)는 아일랜드 남부에 있는 코크 카운티의 코크시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리처드 루이스는 1850년대 초에 아내와 함께 코크로 이주한 웨일스 출신의 보일러 제조업자였다. 리처드 루이스는 앨버트 루이스가 어릴 때 북부의 공업도시 벨파스트 지역으로 이주했다. 리처드 루이스는 벨파스트 지역에서 존 H. 매길웨인과 손을 잡고 기계제조 및 철선 건조업체인 '매길웨이 & 루이스'를 세워 운영하였고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알라스터 맥그라스는 <별난 천재, 마지못해 나선 예언자 C. S. Lewis>에서 작은 회사 '매길웨이 & 루이스'가 1888년에 최초의 타이타닉을 건조했다고 소개한다.

리처드 루이스가 운영했던 조선(造船)회사가 있었던 벨파스트(Belfast)는 당시 번창하는 상업 도시였고, 세계 최대

조선소가 있었다. 이런 대형 조선소들이 즐비한 가운데 소형 조선소가 살아남기는 쉽지 않았다. 매길웨이 & 루이스는 1894년에 대형 조선소인 워크맨 클라크에 합병되었다.

앨버트 루이스는 아버지가 하는 조선업에 관심이 없었고 법률가가 되고 싶다는 뜻을 아버지에게 밝혔다. 리처드 루이스는 아들 앨버트 루이스를 윌리엄 톰슨 커크패트릭(훗날 C. S. 루이스의 스승이 된다)이 교장으로 있었던 러건 칼리지로 보냈다. 당시 이 학교가 진학률이 아주 좋은 학교였다.

앨버트 루이스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그는 루이스 집안에서 처음으로 전문직으로 진출한 사람이었다. 그는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1884년 벨파스트로 돌아와 법률 사무소를 열고 변호사 활동을 했다. 당시 아일랜드 법조계는 변호사를 두 종류로 구분하였는데, 앨버트 루이스는 '법정 변호사

(Barristers)' 대신 '행정 변호사(Solicitors)'로 일했다.

행정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행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하급 법원에서 변론을 하기도 했다. 의뢰인을 대변하는 행정 변호사가 법정 변론을 전문으로 하는 법정 변호사를 고용했다. 앨버트 루이스는 상당히 성공적인 변호사였고 문학적 소양이 상당한 변호사로 잘 알려졌다. 앨버트 루이스가 법정에서 변론할 때에 문학 작품을 인용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앨버트 루이스는 '책을 많이 읽는 박식한 사람이었다. 당시 어느 신문은 앨버트 루이스를 설명하면서 법정 밖에서는 책을 읽는 것이 주된 소일거리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고 한다.

앨버트 루이스는 한편으로 문학과 책을 사랑하는 자신의 성향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 아들의 교육 때문에 집을 책들로 가득 채웠다. 앨버트 루이스는 아들들을 잉글랜드 기숙 학교에 보내서 영국식 교육을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루이스의 아버지 앨버트 루이스

받게 하는 것이 자녀들 장래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C. S. 루이스의 형 워런 루이스(Warren Lewis)는 어머니가 죽기 전에 기숙학교에 입학했고, 둘째 C. S. 루이스는 어머니가 죽은 후 기숙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앨버트 루이스는 아내가 복부암 판정을 받은 후부터 아내를 간호할 간호사를 집에 머물게 했다. 잉글랜드에서 학교에 다니던 큰아들을 불렀고, 아내와 두 아들이 함께할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앨버트 루이스의 마흔다섯 번째 생일에 아내가 죽었다. 그녀가 죽은 날의 평생 그의 방에 그대로 달려 있었던 것을 나중에 그의 큰아들이 알게 되었다. 그만큼 아내의 죽음이 앨버트 루이스의 삶에 큰 충격이었다.

앨버트 루이스의 아내 플로렌스의 죽음은 그들의 두 아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지만, 앨버트 루이스는 평생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다. 그 후 앨버트 루이스는 두 아들과 정서적 교류에서 상당히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두 아들의 교육에 온 정성을 기울였다. 워런(Warren) 루이스와 C. S. 루이스를 자신의 스승이었던 커크패트릭 지도를 받게 한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앨버트 루이스는 둘째 아들이 공부를 마쳤지만 취직하지 못하자 경제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기에 서툴렀다. 전쟁에서 부상당한 아들(C.S.루이스)이 병원에 위문과 달라는 강력한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 C. S. 루이스는 부상을 당해 장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긴 편지를 찾아와 달라고 간청했었다. 하지만 앨버트 루이스는 끝내 아들의 병원에 가지 않았고 이것이 부자간을 멀어지게 하는 큰 사건이 되었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친구 어머니 무어 부인이 C. S. 루이스를 돌봐 주었다. C. S. 루이스는 친구와 맺은 맹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돌봐 준 친구의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그녀를 보양했다. 훗날 1927년 앨버트 루이스가 아들에 잉글랜드를 여행할 계획을 밝히며 옥스퍼드에서 루이스와 그의 칼리지 숙소 방문을 원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C. S. 루이스는 아버지 방문을 거절했다.

C. S. 루이스는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찾아와 주기를 요청했지만, 아버지에게 가지 않았다.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한 것이 C. S. 루이스의 평생 부담과 마음의 짐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루이스는 <용서>라는 글에서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힌다.

C. S. 루이스의 생애에 아버지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특별히 아들 C. S. 루이스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학자로 성장하는데 아버지 앨버트 루이스는 엄청난 영향을 보여주었다. 아이들을 위해 집을 책으로 가득 채운 것이나 자신의 옛 스승 윌리엄 커크패트릭에게 아들을 맡겨 고전어와 논리 그리고 유럽어를 익히게 한 것은 인문학자 C. S. 루이스를 키우는 과정이었다.

앨버트 루이스와 C. S. 루이스 부자(父子)는 사랑 표현에 서툴렀다. 특히 아버지 앨버트는 아내를 잃은 후 삶의 균형을 잃었고 이런 아버지를 아들 C. S. 루이스는 이해하지 못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한 모습이다. 서툴고 투박한 부자간의 사랑으로 C. S. 루이스는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고, 아버지에게 못되게 굴었다. 그리고 이것이 C. S. 루이스에게 씻지 못할 큰 상처와 죄책이 되었다.

Kangtg1207@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이스라엘의 죄악 (호4:11-19) 찬 290장

죄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불의와 불법과 불경건에 속한 어두움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죄악은 "연합(union)"의 문제입니다?(17) 에브라임의 우상과의 연합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첫째, 음란한 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실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12) 마귀의 유혹은 항상 신실성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 진리인 성경 말씀을

으로 충만해야 합니다.(14) 둘째, 자기가 충만한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13-14절에 보면 딸, 며느리, 남자가 다 행음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는 완강한 암소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죄악은 우리 시대의 교회 모습입니다. 세상 경영원리를 이용하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결과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갈 5:22-23)

화 진실과 인애가 없는 세대 (호4:1-19) 찬 84장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탄식하셨습니까? 첫째, 진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1)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보인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회개로 이끄시는 지혜였습니다. 진실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떠난 그들은 거짓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계시가 없는 개인과 나라는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전해진 구원 계시인 성경을 믿을 때만 참 구원을 받

으며 진실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인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없는 인애, 인애가 없는 진실은 모두가 짝입니다. 사람 관계의 기본인 사랑은 진실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서 나온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 사랑은 모두 그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참 인애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때만 생겨집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환난에서 넘겨져 이깁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롬 5:5)

수 하나님의 엄한 심판 (호5:1-14) 찬 543장

이스라엘과 부부관계로 생각하신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첫째, 심판의 죄목은 영적 음행이었습니다.(7)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긴 자기 질고를 치료하기 위해 다른 신을 찾는 것이 그들의 영적 음행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둘째, 심판의 참상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떠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6) 하나님이 떠나시면 모든 일이 무너집니다. 사람의 평명을 쫓다가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 것이 은혜

가 떠난 자의 비참한 모습입니다.(11) 셋째, 그 심판의 목적은 자기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려는 것입니다.(14) 하나님은 젊은 사자처럼 절대 관능으로서(14), 배반한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빼앗아 하나님을 찾게 하며 그 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 은혜로만 구원받은 우리는 그를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크신 사랑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목 진정한 회개 (호5:15-6:11) 찬 439장

이스라엘 죄악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김으로 시작되어 그 영향력이 가정과 사회에까지 미쳐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여기서 호세아가 요구하는 회개는 어떠한 회개였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3) 번제보다 나은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6) 부활의 주를 만남으로 귀로만 들던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얕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 무덤에 갈 때까지 회개하는 생명이입니다. 이

지식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눈 뜨임으로 이루어집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인간적 사랑은 아침구름이나 이슬처럼 한계성이 있지만(4) 하나님은 제사보다 나은 사랑 곧,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겨울비와 봄비처럼 그 분께 열심히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금 나의 왕의 다스림을 받자 (호7:1-16) 찬 331장

죄악에서의 자유와 해방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왕되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참 자유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첫째, 그들의 죄악상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에브라임의 죄 곧, 사마리아의 악은 궤사, 도둑질, 간음으로 점철되어 화덕처럼 죄짓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방법과 정도가 다를 뿐, 쾌락주의와 물질주의는 교회의 생명을 잃게 하는 치명적 죄악입니다. 여리고성의 승리 속에서 아간 한 사람의 탐욕이 전 이스

라엘의 실패를 가져온 것처럼 교회는 탐욕 때문에 망합니다. 둘째, 자유의 길은 왕이신 하나님께 진실로 돌아와 그의 다스림을 받는 일뿐입니다.(10, 14, 16) 그의 주되심이 인정되는 시간과 장소에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의 통치를 받기위해 우리의 거센 마음을 주께 내놓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엡 5:18)

토 언약파기의 결과 (호8:1-14) 찬 284장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근본인 언약 파기로 생긴 결과와 그 회복의 길이 무엇입니까? 첫째, 언약 파기자에게 그의 대적이 성전을 파괴하며(1) 영권이 무너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4) 바람과 광풍으로 줄기만 남아 아무 열매를 얻지 못해(7) 쇠퇴하며 조롱거리가 된다고 했습니다.(8-9)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13) 하나님 심판의 불을 맞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14) 둘째, 회개와 순종으로만 언약관계가 회복됩니다. 회복의 방법은 처

음 요구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불순종한 요나가 회개할 때 또다시 말씀은 처음 받은 사명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해 산 자로 여기라고 하신 말씀 (롬 6:6)은 구원 여정에 항상 점검해야 될 진리입니다. 파기된 언약을 회복하여 준비된 은혜를 누리야 합니다. 어디에 머물렀든지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언약에 신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 복을 향유합니다.

기독교교육 (35)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기독교교육과 자원

기독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성령님, 교육환경, 교과과정, 공간, 가구, 사무기기, 사무용품 등등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모든 자원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 모든 자원이 준비되기를 기다리다가는 교육을 시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봉사자들에게 최고의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독교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원은 성령님입니다. 다른 어떤 자원도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예수님은 물질적인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마태복음 6:25-34). 염려는 생각을 지배하고, 건강을 해치고, 생산력을 저하시키고, 대인관계를 악화시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부를 기독교교육에 적용해야 합니다. 교육사역은 물리적인 자원과 더불어 경제적인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려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면 염려가 필요 있고, 염려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면 염려가 소용 없습니다. 그래도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염려는 아무런 행동도 못하게 하지만 관심은 대책을 찾아 행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기독교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관심을 품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본을 보이며 다른 봉사자들도 성령님께 의지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어떤 자원도 성령님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자원은 학습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이 또한 교회가 제공해야 할 자원이고, 이것은 지도자들의 자세에 달려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삶의 이야기에 대해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삶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환영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농담의 소재로 삼을 수 있는 유머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생중심의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합니다. 학생중심의 환경은 학생이 교과내용, 다른 학생들, 그리고 교사와 함께 자유롭게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학생중심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첫째, 학생들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각 학생의 특성과 필요에 맞추어 대할 때 학생들은 교사가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둘

째, 학생들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각 학생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를 때 학생들은 존중받는 느낌을 갖게 되고, 교실에서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셋째,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자리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자리를 뒤엎뒤엎, 드문드문 배치하기 보다는 교실 앞쪽으로 서로에게 가깝게 배치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토론을 위해서는 자리를 동그랗게 또는 U자 모양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기대하는 바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모르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고 일관성 있게 소통하는 것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학습시간 전과 후에 학생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질문하기를 꺼려하는 학생들이 일찍 도착해서 질문하거나 학습시간 후에 남아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학생들이 동참하기에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어리석은 말이나 행동을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으므로써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동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참여를 장려해주는 것도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학습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 지도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좋은 교육환경도 무의미합니다. 학생들의 동참을 위해 활동 계획과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들의 생각을 물어보고, 그들과 토론하고, 그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제공해야 할 중요한 자원 세번째는 교과과정입니다. 교과과정은 원래 개인이 교회에 도착해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교과과정을 인쇄된 자료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교과과정이지만, 추가적인 학습자들이 학생들의 성경의 이해와 적용을 돕습니다. 그러므로 교과과정은 먹는 음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과과정을 신중하고 현명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교회 교육사역의 비전은 교과과정을 통해 실현됩니다. 교과과정에 반영되어 있는 그리스도적 가치가 어린아, 청소년, 장년들에게 심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바른 교과과정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교과과정을 선택할 때는 교사의 성숙도, 학생의 학습준비 단계, 내용의 적합성, 학습의 목적과 방법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기독교교육을 위해 성령님, 교육환경, 교과과정 이외에도 공간, 가구, 사무기기, 사무용품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번에는 공간, 가구, 사무기기, 사무용품 등의 자원에 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onk@db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킹장 완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리지필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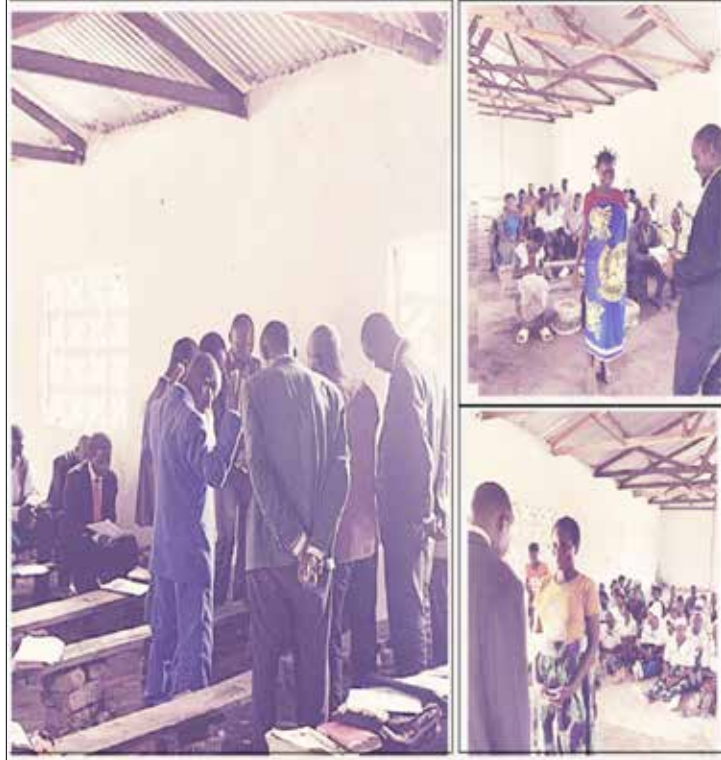
선교 편지

말라위

“치과와 목회자 세미나 및 교인 성경암송대회”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여(시27:4)

치과와 말라위의 남서쪽에 있는 열악한 지역입니다. 물이 풍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가난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이 매우 높고, 1시간 정도의 긴 비포장길과 다리가 없는 하천을 건너야 하는 불편한 교통 탓도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지역만큼 목회자의 교육 수준도 매우 낮고 성경 보급도 저조했습니다. 치과와 교회에 목회자 연장 교육을 위해 먼저 화장실과 예배당의 허물어진 담벼락, 천장 지지대 설치 공사를 해왔고, 9월13일을 기점으로 목회자 연장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치과와 교인들에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외우게 해서 성경을 보급했습니다. 주일학교도 사도신경을 외우게 해서 어린이 성경을 보급하고, 노트와 볼펜 등 학용품도 전달했습니다.



박세우/백미경선교사

기도제목

- 1. 은토냐교회, 왈리얄라 교회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주께 영광이 되도록
2. 지속적인 치과와 목회자 연장 교육으로 믿음의 뿌리가 잘 세워지도록
3. 주부, 청소년들이 성경을 쓰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임하도록
4. 결혼하는 자녀의 가정의 믿음이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중고등부 성경 쓰기 요한복음 마무리를 달란트 파티로 했습니다. 옷과 음식, 학用品을 선물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인도네시아

▲ 종족명 서부 마끼안 종족

▲ 인구 12,000명

▲ 종교 이슬람교 50%, 민속 종교 25%, 복음화율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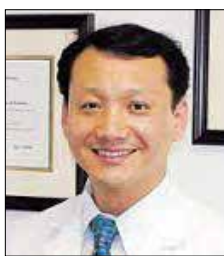
▲ 복음 매체 성경 번역 요청됨, 기타 매체 없음

▲ 종족 프로파일 종족 마끼안섬에 주로 살다가 1975년 화산 폭발 후 할 마헤라 섬으로 이주했다.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공동체 의식이 강하여 건축, 밭갈기, 숲 청소 등을 다같이 한다. 종교는 보통 이슬람교여서 각종 문화에 뿌리 깊게 나타나는 한편 정령을 활용한 마술 행위도 이뤄진다.

- ▲ 기도제목 1. 고립된 지역이어서 기초 시설이 열악한데 적절한 도움이 전해지도록
2. 서부 마끼안 종족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뿌리 깊게 자리잡은 이슬람교와 정령숭배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도록
3. 속히 그들의 말인 서부 마끼안어로 된 성경이 번역 되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감기는 예방이 중요

감기는 내과의사가 클리닉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질병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방문 환자의 30% 이상이 감기환자인데 일반감기는 알려진 대로 마땅한 치료약이 없다. 따라서 콧물, 기침이 심하면 알러지 기침약을 쓰고 열이 나면 타이레놀과 같은 해열제를 써서 열을 떨어뜨린다. 가래양이 많거나 기침이 너무 심하면 항생제를 쓸 수 있다. 감기에 관한 미국인과 한국인의 시각은 매우 다르다. 미국환자들은 일반 감기는 특별한 치료가 없고 바이러스가 일주일 정도 몸에 머물다가 지나가므로 콧수프를 먹고 증상치료를 하면 저절로 좋아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환자들은 교육 수준(?)과 큰 관계없이 감기는 병원에서 주사 한방 잘 맞으면 좋아진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많다. 따라서 일반 감기를 가지고 병원에 와서 약을 복용해야만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환자들은 감기치료를 잘하는 병원을 찾아가는 것을 자주 본다. 그 이유는

아마 한국에서는 지금도 감기가 걸리면 소아과나 내과에 찾아가서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감기를 가지고 주사를 맞는 경우는 없다. 다만 천식이 심한 경우에 기침과 호흡관란이 심해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감기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때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효과적일 수 있다. 또 편도선염이 심할 경우 당장 음식을 삼키기 어려울 때도 항생제 주사를 맞기도 한다. 감기에 관한 치료가 없는 이유는 감기는 수십가지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고 해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제를 개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예방이 매우 중요하고 일단 감기에 걸렸으면 합병증이 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감기를 미리 예방하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도록 한다. 또 손발을 자주 씻고 사람들이 많은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는

인체면역 기능을 향상시켜 주기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증식하는 것을 막아준다. 감기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주된 경로는 손에 묻어있는 감기 바이러스가 코점막을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인데 손을 자주 씻게되면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재채기에 의해서 공기중으로 감염이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감기가 유행하는 때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를 피하는 것도 감기예방법이다. 감기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증상치료에 주력하고 감기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흔한 감기합병증에 관한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합병증이 나타날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다. 감기를 오래 앓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급성 부비동염(축농증), 폐렴, 기관지 천식과 만성기침등이 있다. 급성 부비동염은 콧물감기를 오래 앓다가 보면 누런가래가 나오고 눈아랫쪽에 압박감을 느끼면서 두통을 호소한다. 가래가 목뒤로 넘어가서 밤에 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다. 초기에 항생제 치료를 하면 쉽게 완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기진단이 필요하다.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에는 감기와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리를 해보면 감기는 치료가 없기에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감기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손을 자주 씻으면서 코를 만지는 습관을 피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멀리하도록 한다. ▲문의:213-383-9388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본교의 신학대학(원)은 37년 전통의 복음주의적인 초교파 교육기관으로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수, 기업인, 의사 등 동문들이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음.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국방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 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신앙 에세이



류영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이런 가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가을을 알리며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가을은 분주하게 가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삶을 깊이 들여다 보게 합니다.

이런 가을에는 가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가?

가을에 또 하나 묻고 싶은 질문은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곡식은 여물이 갈수록, 과실은 단맛을 담을수록 겸허히 머리를 숙입니다.

가을에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내 진정 삶의 깊음과 맑음을 추구하고 있는가? 깊은 대양은 모든 생물을 포용하고 맑은 호수는 거대한 산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preachchrist@kcpc.org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23 WMS 아시아 선교대회

“아시아를 주님의 품으로”, 필리핀 수빅한인교회에서 열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총회장 김성국 목사) 세계선교회 WMS(이사장 오세훈 목사)아시아 선교대회가 "아시아를 주님의 품으로"를 주제로 필리핀 수빅한인교회(담임 조성일 목사)에서 120여 명의 선교사와 선교회 이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10월3일(화)-6일(금)에 개최됐다.



2023 WMS 아시아 선교대회 후 다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금번 대회에는 총회 파송 선교사 중에 필리핀, 태국, 몽골, 중국,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일본,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들이 참가했다.

필리핀 선교 합창단(지휘 이상호 목사)의 환영 공연 후 드린 첫째 날 저녁, 개회 예배는 본부장 김선중 목사 사회, 이사 광덕근 목사 기도, 이사장 오세훈 목사의 설교, 김성국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강의 및 자유 토론 순서는 김선중 목사의 사회로 1, 2강에 걸쳐 진행됐다. 1강 강사는 전 이사장 이윤걸 목사, 2강 강사는 GMS 황태연 목사가 각각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후 계속된 3강 선교보고대회 시간을 통해 각 지역 선교사 10명(여상일, 김재호, 서삼룡, 김진욱, 이성덕, 고의권, 최광기, 김팔옥, 김영주, 정형규)이 나와 각각 15분씩 현지 필리핀 선교사역 보고를 전했다.

있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진정한 행복을 느끼도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전했다.

둘째 날 새벽 기도회는 서기 한세영 목사의 사회, 부이사장 이윤석 목사 기도, 전 이사장 유재일 목사의 설교, 전 총회장 송찬우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강의 및 자유 토론 순서는 김선중 목사의 사회로 1, 2강에 걸쳐 진행됐다. 1강 강사는 전 이사장 이윤걸 목사, 2강 강사는 GMS 황태연 목사가 각각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후 계속된 3강 선교보고대회 시간을 통해 각 지역 선교사 10명(여상일, 김재호, 서삼룡, 김진욱, 이성덕, 고의권, 최광기, 김팔옥, 김영주, 정형규)이 나와 각각 15분씩 현지 필리핀 선교사역 보고를 전했다.

둘째 날 저녁 집회는 선교사 파송 예배로 드렸다. 이사장 오세훈 목사 사회, 장성철 목사 기도, 필리핀선교합창단의 찬양, 김성국 목사 설교, 선교사 여상일 목사 축도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국 목사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사도행전 4:1-12)"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조하은

선교사(필리핀아렌다평강교회)의 동시통역으로 진행된 설교에서 김 목사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다. 우리의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충분하시다! 예수님에게는 모자란 것이 없다. 목회를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이렇게 하면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사실 유일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중보와 부활, 그 복음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사와 역사가 일어난다. 세상을 구원한 유일한 길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아시아가 주님의 품으로 온 세계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라고 설교했다.

이번 신규 파송 선교사는 정형규 이종심(필리핀), 고의권 유수란(필리핀), 이성덕 이미라(필리핀), 김영주 정영숙(필리핀), 김팔옥 정영희(필리핀), 최광기 박영미(필리핀)이다.

셋째 날 새벽 기도회는 부서기 조영철 목사 사회, 이사 한일철 목사 기도, 전 총회장 송찬우 목사 설교, 오세훈 목사 축도로 진행됐다.

이어 현지 부족 탐방(전대구 목사, 조성일 목사 담당), 자유 토론(여상일 목사 담당), Oceans Adventure 관광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순서로 드린 폐회 예배는 WMS 서기 한세영 목사 사회, 총회 서기 유진상 목사 기도, 필리핀선교합창단 찬양, 부이사장 장성철 목사 설교 "은 유대와 아시아까지(사도행전 1:8)", 부서기 조영철 목사 광고, 다함께 "파송의 노래" 찬양 후 총회장 김성국 목사의 축도로 선교대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KAPC 세계 선교회는 총회 상비부로 있던 외지선교부를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총회선교사역을 위해 5년간 준비하여 지난 2005년 제29회 총회에서 세계선교회(KAPC World Mission Society)의 정관을 채택한 후 2005년 7월 10일 이사회를 출범한 바 있다. 현재 KAPC 총회 산하 600여 교회들의 기도와 협력을 바탕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113개지의 총회 선교사를 파송하여 후원하고 있으며 이사회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김재상 기자)

베드로 진서 9

무엇을 사랑할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주어지는 것이 많다. 공부를 많이 하여 학박사가 되거나 특이한 일을 잘하여 유명인사로 알려져 명예가 있거나 부귀공명을 함께 가지는 존재가 된다.

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까지 뿐이다.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책을 세 권 냈다고 유명 저자도 아니고 이민 목회자로서 지난 일생이 누군가의 말처럼 성공적인 목회자였다고 할 수도 없겠다. 그렇다고 목회자의 삶에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만큼 부유한 삶을 산 것도 아니

다. 설혹 있다고 한들 그 모든 것은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까지 뿐이다.

심장이 멎고 삶이 끝날 때는 앞서간 위인 영웅들 또는 초라한 한 촌부의 죽음과 같이 쓸쓸히 사라질 뿐인 것이다. 앞서간 귀한 분들이 그리워지지만 모두 한 줌의 흙으로 변했고 그들이 남긴 것이 있다 해도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뿐이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건강하게 살 때까지 뿐임을 기억하는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족과 함께 그리고 함께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살아왔던 성도들과 함께 즐겨야겠다.

revpeterk@hotmail.com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

기분좋은 만남, 정성을 다하는 명준모 위장내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 120대 주차장 완비
-Q28, Q13 버스정류장 앞



Joon Mo Myung, M.D.
- NY Hospital of Queens 일반내과/위장내과 Faculty
- Ohio 종합병원 다년간 경험 풍부
-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위장내과 전문의 수료
- Baylor College of Medicine 일반내과 전문의 수료
- New York University 임상연구

주소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